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8월 7일)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몸 멀어도 마음 가까이 차례·나눔 비대면 전환

코로나 이후 첫 추석… 달라진 명절 모습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계 역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며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매년 불자와 시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증가 추세에 있던 사찰 합동차례는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쉼 · 마음나눔' 을 주제로 10월 1일 오전 8시와 오전 11시, 오후 1시 3차례에 걸쳐 추석 합동다례재를 진행한다. 조계사 합동다례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다례재 참석 대중이 모두 대웅전에 들어갔던 예년과 달리 대웅전 앞마당에서 대기 후 순번에 따라 대웅전에 입장해 조상들에게 다례를 올린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유의하면서 부처님 도량에서 조상을 기리며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법원)는 10월 1일 오전 10시 2층 큰법당에서 추석합동다례를 진행한다. 전각 앞마당이 없는 국제선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가능성에 따라 법당에서 진행되는 합동다례 참여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 매년 함께 진행하던 새터민 합동다례도 장소를 다시 정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를 함께 진행한다. 국제선센터는 합동다례 이후 새터민을 위한 나눔의쌀 증정행사도 포장배송 형태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국제선센터 측은 "현재 모든 사중 행사를 유튜브로 중계 중인데, 합동다례 또한 온라인 중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 이라며 "법당 내외에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0월 1일 오전 8시와 오전 10시, 오후 2시 법왕루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봉은사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법왕루 내 인원을 통제하고 초과할 시 외부 공간에서 대기토록 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내 지장전, 선불당, 영각, 미륵전, 전통문화체험관, 영산전, 판전 등에서 가족만이 참석 가능한 단독차례도 함께 진행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솔)도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 합동다례를 진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된 다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과 '한마음TV' 를 통해서 생중계 된다.

전국 불교계 복지관은 매년 추석이 되면 합동차례 등을 마련해 소외이웃과 지역주민들의 보다 풍성한 명절을 지원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명절 선물로 대체하거나 온라인 합동차례 형태로 변경하고 있다.

합동 차례 · 나눔 행사 등
온라인 · 거리두기로 진행
템플스테이는 휴식형만

매년 합동차례를 준비해 온 은평노인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실향민 등을 위한 온라인 합동차례를 진행한다. 현실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득이 각 가정의 지방만을 신청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산노인종합복지관도 매년 추석을 맞아 무료로 진행해 온 '선망부모 조상 및 각종 인연영가 합동차례' 를 9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종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6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추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휴관으로 예년과 같이 복지관에서 추석을 함께하지 못하기에, 명절 선물을 키트로 만들어 200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됐다.

올해에는 추석 명절 템플스테이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추석 관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고 일부 사찰서만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운영키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들은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따뜻한 위안과 격려를 선사해 주신 스님과 불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 대응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진은 원행 스님이 불교 지도자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 "방역 앞장 선 불교계에 감사"

불교 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서
9월 19일 13명 불교지도자 참석
정부–종교 대응협의 논의 시사
원행 스님 "낮은 자세로 보살행"
진제 스님 '만고휘연' 휘호 전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만고휘연' 친필 휘호.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의 선제적 조치와 지속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들은 9월 18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오찬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따뜻한 위안과 격려를 선사해 주신 스님과 불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 대응에 재차 감사의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특히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뒤로 미뤘고 천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내린 용단이기에 감사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네스코 등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방역과 종교활동 병행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법회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불교계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봉착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정신과 문화의 참된 가치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유네스코 등재를 뒷받침하겠다"며 "또한 법회 중단 장기화로 불교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9월 24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지도자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큰 시름에 빠졌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물론 태풍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도 또한 크다"고 말했다.

또한 '우직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파서 크게 성공한다' 는 우공이산을 인용해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과 사회 지도자, 불교계는 우공이산의 고사를 교훈 삼아 대중에게 더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불교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선도적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랐고, 우리 사부대중 또한 종단협의회 지침에 잘 따랐다"며 "법회가 중단되고 산문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불교계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 당국과 함께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원행 스님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로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이 쓴 '만고휘연(萬古徽然)' 친필 휘호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무한 세월동안 영원히 광명하다' 는 뜻이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원행 스님과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 소속 종단 수장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13명의 불교계 인사가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유식학 · 대행선 접점 모색하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5집 발간

기획논문 4편서 연구 선보여
유식 '자성신', '한마음' 비교
주인공, 유식관법 3단계 분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재)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8월 31일 논문집인 〈한마음연구〉 5집을 발행했다. 이번 논문집에서는 유식학과 대행선의 접점을 탐구한 기획논문 4편과 일반논문 4편 등 총 8편의 논문이 실렸다.

먼저 안환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는 '유식사상과 대행선-자성신과 한마음을 중심으로' 주제를 통해 유식학의 '자성신'과 대행선사상의 '한마음'을 붓다의 본지인 공관(空觀)과 수행의 관점에서 비교 · 분석했다.

안 교수는 〈유식30론송〉과 〈성유식론〉에 나타난 해석을 중심으로 '자성신'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두 사상에서 '자성신'과 '한마음'은 수행을 통해 증득하는 궁극의 경지이며 존재의 기반으로 보았다.

안 교수는 공관에 입각해서 볼 때, 유식학의 '자성신'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는 경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대행선사상은 '한마음'을 '자성불' '주인공'과 같이 다양하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궁극의 경지가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했다.

안유숙 동국대 철학박사는 '유식관법과 한마음 주인공 관법의 비교 고찰'을 통해 유가 5위의 자량위 · 가행위 · 견도위 · 수도위 · 구경위 가운데 견도위는 대행 선사의 1단계 주인공 관법, 수도위는 2단계 주인공 관법, 구경위는 3단계 주인공 관법과 배대하며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조명한다.

대행 선사의 1단계의 주인공 관법은 중생심 · 번뇌심 · 삼독심을 '끊고' 참 나를 얻는다기보다, 그것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참 나로 '되바꾼다'고 하였기에 지관쌍운의 유식관법에서 나타나는 영상이 임시적인 것임을 자각하는 단계로 파악했다. 2단계의 주인공 관법은 '참 나로서 주인공을 사무치게 알고 새로이 태어났지만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생명과 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전체 생명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를 지관쌍운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3단계의 모두와 하나 되는 주인공 관법은 제11지의 불지와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자신의 보리와 열반뿐만 아니라 공생(共生) · 공심(共心) · 공용(共用) · 공체(共體) · 공식(共食)의 무심의 보살행으로 귀결되는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이 지향하는 바와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안 박사는 유식관법과 주인공 관법의 원리를 정교하게 다듬고, 명확하게 꿰뚫어서 삶 속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이원성의 세계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의식은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준 위덕대 연구교수는 '대행선과 총지선의 성립배경 고찰-〈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의 주제 논문에서 대행 선사의 한마음사상에 보이는 밀교적 소재를 검토했다. 특히 선무외삼장의 〈무외삼장선요〉를 중심으로 밀교와 한마음사상을 비교하고, 대행선과 인도불교가 감당해 온 상이점과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확인했다.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인경 스님은 '대행선의 주인공 화두명상'을 통해 대행선의 성격을 주인공 화두명상으로 규정하고, 대행선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들을 중국선종사와 한국간화선의 전통과 비교했다. 특히 주인공 개념, 주인공 화두와 의정의 사용용례, 간화선 수행단계, 사량 분별과 내려놓음, 간화와 지켜봄 등 간화선과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한 비교 · 분석을 토대로 기존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결과적으로 인경 스님은 대행선의 성격을 '주인空 관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인공 화두' 명상 계열로 확장했으며 기존 간화선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았다.

단지 화두 참구의 스타일에 대해, 전통 간화선은 의정 · 의단을 강조한 번뇌에 대한 배타적이고 투쟁적 집중(憤心)이라면, 반면에 대행선 역시 의정을 중시하지만 상대적으로 번뇌의 내려놓음과 주인공에게 맡김으로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한 점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마음연구〉는 1년에 2회 발간되며, 연구논문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자료관-논문다운로드' 항목에서 보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조성민 동국대 의료원장과 우용호 나눔의집 원장이 9월 15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세미나실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의료원 '위안부 할머니' 지원 나선다

동국대의료원 · 나눔의집 9월 15일 업무 협약

일산불교병원 등 산하기관 5곳
나눔의 집 '전담의료기관' 활동
할머니 · 직원들 진료비 등 감면

동국대의료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의료 지원에 나선다.

동국대의료원(원장 조성민)과 나눔의집(원장 우용호)는 9월 15일 동국대일산불교병원 4층 중강당에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할머니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통해 동국대의료원과 나눔의집은 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인 일산불교병원 · 일산불교한방병원 · 경주병원 · 경주한의원 · 분당한방병원을 '나눔의집 건강관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료비 30% 감면 △종합건강검진료 30% 감면 △상급 병실 우선 이용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나눔의집 소속 직원들의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도 30%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약식 직후 우용호 나눔의집 원장은 "무엇보다 현재 나눔의집에 계시는 할머니들 모두 90세를 넘기신 고령으로 건강문제가 가장 우선된다. 할머니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설장으로서 우선적 책무"라면서 "최근 나눔의집과 관련해 여러 문제들이 왜곡돼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 동국대의료원과 할머니들의 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이다. 불교계가 나눔의집을 운영한 지 28년이 됐고, 동국대의료원도 30년의 역사가 있음에도 여지껏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의료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눔의집에 계시는 할머니들과 이를 케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산=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재 보유 사찰들 추경 편성에 배려를"

원행 스님, 9월 16일 박양우 장관 예방서 당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재 보유 사찰들에 대한 정부 당국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다.

원행 스님은 9월 16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교 문화재 보유 사찰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 추경 예산 편성에서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어려움을 감수하고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사찰들의 재정 상황은 많이 어렵다"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보 · 보물 등의 문화재지킴이 인력을 줄일 수는 없다. 현재 문화재관람료의 30% 예치금에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는 데 이마저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유 사찰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종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다. 향후 추경 편성에서 문화재 보유 사찰들을 배려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9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사진은 합장인사를 하고 있는 원행 스님과 박양우 장관의 모습.

이에 박양우 장관은 "현재 문화예술 · 체육 · 여행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방면을 통해 살피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문화재 보유 사찰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신성민 기자

"수도권 신도조직 네트워크 구축"

원행 스님, 16일 최상원 직할교구신도회장 임명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회장 최상원)는 9월 16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으로부터 제6대 집행부 임명장을 받고 발전 계획을 밝혔다.

직할교구는 7월 2일 총회에서 최상원 호압사 신도회장을 6대 직할교구 신도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최상원 직할교구 신도회장은 덕원 엠앤에스(주) 회장, 원진 동우 특수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직할교구는 당초 이취임식을 조계사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임명장 수여와 함께 간단한 기자간담회로 변경해 진행됐다.

최 신임회장은 원행 스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뒤 "올해는 직할교구신도회가 출범 10년을 맞는 해로 지난 10년간 자선골프대회, 일일 찻집 및 바자회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등 나눔과 불교의 사회적 위상 확대에 주력해왔다. 앞으로 직할교구 말사들만의 연합체를 넘어서 수도권 사찰을 두루 아우르는 등 연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조직을 다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신임회장은 무엇보다 직장직능단체, 불자회와 사찰신도회의 네크워크 조직을 강조했다. 최 신임회장은 "대외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사찰신도회 및 각 직장직능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불자네트워크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통 법복을 맞춰입고, 매월 1회 정기법회를 사찰별로 순회하며 여는 등 구체적인 신행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신임회장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불자회 준비조직 관계자들도 참석해 직할교구 신도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원행 스님은 임명식에서 6대 직할교구 신도회 집행부에게 "매일 하루에 100원씩 1백만명이 동참하는 백만원력불사에 직할교구신도회가 적극 동참 해달라"며 "백만원력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과 불교발전에도 서로 협력해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6대 직할교구 신도회 집행부는 이날 백만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 5 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접 수 2020.10.07(수) ~ 08(목)
전 시 2020.11.25(수) ~ 30(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대한불교천태종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합니다.
불화(전통·현대), 조각, 공예, 민화 총 4개 분야에서
참신한 예술가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모 바랍니다.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출품료	출품제한	자 격	유 의 사 항
불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1점당 50,000원	1인 3점	제한 없음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3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품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전 분야 대학 재학생 출품료 30,000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작품제작과정 담은 세부 작품설명 필요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상인원	시상내역	비고
대 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우수상	4명	상금 각 300만원 상장 상패	
우수상	4명	상금 각 100만원 상장 상패	
장려상	4명	상금 각 30만원 상장 상패	
특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선	약간명	상장	
특별상		상장 및 기념패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 작품 사진 미 부착, 작품 제목, 설명 및 규격 미기재, 주소 및 연락처 미기재 등 소정양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원서 제출자의 작품은 추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원서 및 작품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해주세요.

원서 배부 및 작품 접수
- 공모 요강 및 원서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6월부터 확인 및 출력.
- 접수 기간 : 10월 7일(수)~8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 작품 접수비는 계좌로만 수납 접수. 현금 수납 불가.
- 출품자와 출품료 입금자 명의 동일.
- 10월 8일까지 이체된 접수비에 한해 접수 완료.
- 계좌 번호 :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작품 반출
- 낙선작은 심사 발표 후 일주일 이내에 출품자 본인 및 대리인의 접수증 확인 후 회수. 일정 추후 공지.
- 입상작은 12월 1일 오전 10시 반부터 정오 사이 전시장에서 본인 및 대리인(접수증 확인)이 반출.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시상식 및 전시
시상식 일정 추후 공지.
전시 - 11월 25~30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나눔의집 제보자, 할머니 의료카드 유용 논란

내부제보직원들, 횡령 등으로 잇단 고소

유가족들, 횡령 · 배임 의혹 제기
제보직원들 '후원금 유용' 논란도
절차없이 후원금 임의사용 정황
국가권익위 보호조치 취소 청구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나눔의집 운영부실 문제를 지적해 온 내부제보 직원들이 최근 횡령 · 배임 등 의혹으로 잇따라 고소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눔의집 사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내부제보 직원 중 한명인 간호조무사 A씨가 최근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개인에게 연 1000만원 가량 지급되는 의료급여카드의 존재를 숨긴 채 수년간 무단사용해 온 의혹으로 고소돼 충격을 전한데 이어 다른 직원 B씨도 사인 및 문서 위조로 전 시설장에게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내부제보 직원 7명이 그동안 후원금 및 법인 전입금 카드를 보고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해 온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나눔의집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양한석, 이하 추진위)'는 9월 15일 광주 나눔의집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공개했다. 추진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진정한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법적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내부제보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조치도 함께 예고했다.

이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사안은 간호조무사 A씨의 의료복지카드 관련 횡령 · 배임 의혹이다.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대표 양한석(故 김순덕 할머니 아들)씨에 따르면 A씨는 나눔의집에 입소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의료급여카드를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관 · 관리해 왔다. 해당 카드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 온 혜택으로, 올해 기준 1인당 1000만원 상당을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수년간 의료급여카드의 존재를 할머니와 유가족 등에게 숨겼을 뿐 아니라,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상급자에게도 카드와 관련한 일체의 보고 없이 영양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이를 유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故이용녀 할머니의 아들 서병화 씨 등 유가족들은 "나눔의집에 거주하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유가족은 물론 현재 거주중인 할머니의 가족도 해당 카드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A씨가 유가족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고가의 영양제 등 보조식품과 의약품을 자주 선물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의 카드로 생색을 내 왔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낀다. 심지어 일부 가족의 경우 카드를 존재를 몰라 비급여 치료비를 부담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우용호 소장 역시 "6월 소장으로 부임한 뒤 유가족들의 얘기를 듣고 뒤늦게 의료급여카드에 대해 알게 됐지만, 그동안 사용 내역이나 건강 기록 등 관련 서류도 일체 없었고 전 소장과 사무국장 역시 알지 못했다"며 "할머니 개인에게 지원되는 카드라도 시설 입소어르신의 경우 개인이 지참한 상태로 사용하거나 시설이 관리를 위임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의 경우 당사자와 가족도 모르고 시설 상급자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카드를 무단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눔의집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추진위'는 9월 15일 내부 제보 직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해당 카드는 시설 서랍에 보관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해 향후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A씨측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의료급여카드는 할머니들의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으며 물품을 산 영수증은 모두 보관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서 통해 일정기간 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A씨를 포함한 내부제보 직원 7명에 대한 고발 계획도 추가로 밝혔다. "내부제보 직원들이 법인 후원금을 절차 없이 개인 식사 및 음료 구입 등 사적으로 유용해 왔다"는 주장이다. 추진위는 "관련 통장 사용내역에 따르면 내부제보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법인 전입금과 지정후원금 등에서 451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절차 없이 식대 등으로 임의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사용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거액의 후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제보 직원 B가 전 시설장의 사인을 위조해 점심식대 지원과 관련한 내부문서를 남긴 의혹도 제기됐다. 당사자인 전 시설장은 "3월 근무 당시 B씨가 제출했다는 점심 식사비용 지원요청에 대한 내부보고서를 본 적도 없으며 친필 싸인을 한 적도 없다"며 "B씨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친필사인 대조를 위한 문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내부제보 직원 C씨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진위에 따르면 C씨는 법인 직원임에도 임의로 시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광주시 감사 지적사항에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새롭게 채용된 법인 과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다.

조영군 사무국장은 "광주시와 경기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정조치를 하려고 해도 일부 내부제보 직원들의 임의행동으로 협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권익위원회가 이들을 공익제보자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도 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받고자 했지만, 대표가 아닌 직원이 임금 지급 지시를 불이행한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나눔의집에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과 관련, "나눔의집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던 내부제보 직원들이 되레 나눔의집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나눔의집 운영진은 최근 국가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내부제보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 의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 사태가 5개월간 해결기미 없이 답보상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된 법적 공방이 향후 정상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국대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연다

10월 10일 동국대 팔정도광장서 개최
9월 유튜브로 콘텐츠 사전제공
시민 '코로나 블루' 극복 취지
"온 · 오프라인 융합한 새 형태"

동국대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과 이 시대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명상 콘텐츠를 온 · 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1회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동국대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명상, 서울 ON'을 주제로 9월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 명상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10월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온 · 오프라인을 융합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9월 9일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상을 위한 강연과 함께 체험 명상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명상강의'에서는 수불 스님(안국선원 선원장)이 '코로나 시대,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는 화두명상'을 주제로 한 강의를, 서광 스님(동국대 교수)이 '코로나 시대, 무기력한 몸을 깨우는 영상'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금강 스님(해남 미황사 주지)이 '코로나 시대, 한국인들의 명상'을, 재마 스님이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아울러 '일상체험'으로는 혜주 스님이 연출에 참여하고 동국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걷기명상', 음악명상 연구소장인 이정은 씨의 '음악명상' 등 다양한 형태의 명상법을 유튜브로 제공한다.

특히 오는 10월 10일 오후 서울 동국대 팔정도(중앙광장)에서 본 무대인 '명상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하버드 의대 심리전문가인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달라이라마 존자의 축하공문, 쉐오민 센터의 우 떼자니야 사야도의 친필 축하 메시지 등이 동영상으로 연출되면서, '코로나 시대의 우리들'을 주제로 한 명상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토크 콘서트에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명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연사들과 이웃 종교 성직자들도 함께 참여해 명상강의와 시연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코로나 블루를 가라앉히는 따뜻한 선율의 시간'을 주제로 김나래 해금 연주자가 '선과 국악의 선율'을 주제로 한 연주와 명상노래를, 담소네공방이 '힐링음악'을, 동국대 김정민 교수(문화예술대학교)가 졸업생들과 함께 결성한 연주팀 소리공감의 위로 공연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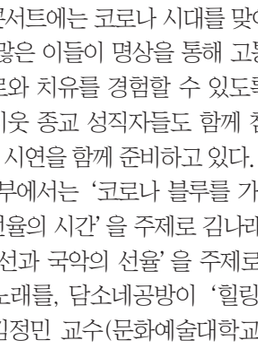
이번 행사를 기획한 동국대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 추진위원장 종호 스님(기획부총장)은 "비대면 온라인 영상에 역점을 뒀다"며 "온 · 오프라인을 융합한 온택트의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명상 서울 ON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020 명상, 서울 ON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관람 또는 ZOOM을 통한 직접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mind.dongguk.edu)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제23대 청불회장에 최재성 정무수석 선출

운영위 회의서…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사진>이 청와대 불자회(이하 청불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청불회는 "운영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제23대 청불회장으로 최재성 정무수석을 선출했다"고 9월 9일 밝혔다.

최재성 신임회장은 1965년 출생으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시갑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 첫 국회의원으로 불교계에 신망이 두텁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 열린우리당 대변인,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올해 8월 문재인 정부의 4번째 정무수석으로 발탁돼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당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신임 청불회장 취임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발전적 계승’ 원융종 학술대회 연다

9월 27일 AW컨벤션센터서

대한불교원융종(원장 진호)이 9월 27일 오후 1시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과 현대 사찰경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불교원융종은 부처님을 교조로, 태고보우국사(太古普愚國師)를 종조로 하여 1977년 창종과 함께 1982년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이다. 종단 소속 사찰은 300여 개로 미국 오클라호마와 일본에 포교당을 두고 있다.

대한불교원융종은 1991년 3월 26일 여러 종단을 하나로 회통하는 통불교적 성격을 담아 불교의 핵심교리와 실천수행과제를 총망라한 〈원융종전〉을 발간한 바 있다. 2010년 3월에는 〈통일 법요집〉과 〈상장례의식 법요집〉을 편찬 발간해 의식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본불교변천종과 자매결연을 맺어 일본불교와의 교류확장에 나섰으며, 중국불교계와도 교류의 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불교 활동과 함께 국내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포교사업과 복지사업에 중점을 둬 매년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잔치와 생필품 전달 및 불우청소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과 함께 대한불교원융종은 창종 40주년을 맞아 2017년 6월 2일 ‘제1회 대한불교원융종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포교 향방을 정립하기 위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원융종 창종 정신에 담긴 원융회통사상의 실천과 코로나19와 같은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여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을 모색하는 자리다.

학술대회서는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한국불교의 발전적 계승과 현대 사찰경영’을 주제로 기조발제하며, 조준호 고려대 교수가 ‘붓다의 삶에 기반한 한국불교의 역할과 원융종지’를,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가 ‘불교의 인간관, 세계관, 경제관의 현대적 계승’ 등을 발표한다.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2017년 제1회 학술세미나를 연 이후 포교 방향과 불교 발전을 위해 학자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있다. 서구 기독문명의 확산 일로에서 사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로 관심을 당부했다.

(02)396-2442 노덕현 기자

산사서 특화 문화재 체험해볼까

문화재청, 내년 지역문화재 사업 400선 선정

전통산사 42곳 활용사업 등재
금선사 등 특색 프로그램 운영
고택 · 서원 · 향교 등 활용도
문화유산 활용해 경제 활성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산사 42곳에서 특화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내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2선을 비롯해 ‘문화재야행’ 42선, ‘생생문화재’ 160선,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116선, ‘고택 · 종갓집 활용’ 40선 등 총 40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사업은 문화재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총 544건이 접수됐데,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총 400선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 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공연 · 답사 등의 형태로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총 54건의 응모된 공모사업 중 42건을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산사와 프로그램들은 △오대산 월정사의 ‘오대산 산사 천년의 울림’ △대구 동화사의 ‘동화사 문화재 학교’ △예산 수덕사의 ‘수대반(수덕사 대웅전에 반하다)’ △고창 선운사의 ‘도솔산 선운사 산중 기행’ △구례 화엄사의 ‘가자 화엄세상으로’ △김제 금산사의 ‘마음 쉬는 일요일’ 등이 있다.

이밖에도 선정된 산사들은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참배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된 ‘생생문화재’ 사업은 숨겨진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형 사업이다.

이중에는 불교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들도 다수다.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강원도 철원군의 ‘문화재 속 숨은 이야기 찾기’는 국보 제63호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과 철원 노동당사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주시는 6년 이상 지속해온 ‘목판본 삽화를 활용한 전통 판화학교’와 함께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와 국보 제59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비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을 활용한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을 품다’를 진행한다.

양주시는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와 관련 보물들을 활용한 ‘생생 탐험 현장, 회암사지의 8가지 보물’을, 구리시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묘소와 망우동 독립유공자 묘소에서 선열을 기리는 ‘망우, 힐링산책’을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활용 전문 인력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발굴한 고려 초기 석불입상.

북한산서 고려 초기 석불입상 발견

북한산공원사무소 12일 발굴
2m 크기 · 10세기 제작 추정

북한산 인수봉에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불입상이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기연)는 “공원 내 산재해있는 비지정문화재 정밀조사 중 북한산 인수봉 아래에서 고려시대 초기 석불입상을 발굴했다”고 9월 14일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4월경 흙에 반쯤 묻혀 있는 석불로 추정되는 바위를 발견했고, 문화재청의 발굴 허가를 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12일 바위를 뒤집었고, 머리가 없는 불상의 몸통이 확인됐다. 불두(佛頭)는 몸통 다리 끝의 땅속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얼굴의 형태와 몸통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불두는 짧은 코와 두툼한 입술에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석불입상의 몸체는 높이 2m · 폭 65㎝, 머리는 높이 60㎝ · 폭 45㎝로 전체 높이는 260㎝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웅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지원보전과장은 “북한산 인수석불입상은 10세기에서 11세기 석불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 발견된 여래상 중 머리에 쓰는 보계를 꽂는 촉이 남아있는 석불입상은 드문 경우여서 연구사적,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굴을 계기로 공원 내 산재해 있는 숨어있는 역사적 보물의 가치를 밝히고, 문화재청, 지자체와 협력해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관음종, 코로나 극복 위한 마스크 후원

종단 소속 사찰 · 지역사회에
마스크 1만 3000여개 전달
1000만원 상당 규모 ‘눈길’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마스크 지원에 나섰다.

관음종은 9월 17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전달식을 열고 숭인 1 · 2동 지역주민센터 등에 마스크를 전달했다. 이날 관음종이 후원한 마스크는 총 1만3000여장. 지역주민 뿐 아니라 관음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종단 소속 사찰에도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 재확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종단 소속 사찰인 양주 대원정사에서 수해 및 코로나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300만원을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관음종은 대원정사가 기탁한 나눔기금에 종단 차원에서 700만원을 추가로 보시하는 등 원력을 더해, 지역 내 소외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 9월 9일 종무회의에서 종단 소속 사찰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마스크 지원의 건을 의결하고, 전국 소속 사찰에도 각 50장 상당의 마스크를 배송했다. 이번 마스크 지원에 사용된 기금은 총 1000만원 가량으로, 관음종복지재단도 함께 동참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9월 17일 관음종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스크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준 숭인 2동 주민센터장(동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숭인 1동 직원들이 참석했다. 김동준 동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외주민들에게 더없이 든든한 감염예방 물품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관내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 등에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관음종과 낙산묘각사가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고민하던 중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재차 원력을 냈다”며 “코로나 사태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다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이 더욱 수행하고 정진해 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청각 장애인 불자들의 ‘화엄만다라’

조계사 원심회 만다라 展, ‘고요 속에 비친 내 마음’

비로자나국제선원 내 갤러리 까루나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의 만다라 전 ‘고요 속에 비친 내 마음’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임수진 씨의 만다라 지도와 원심회 수어통역사들의 통역지원을 받은 20여 명의 원심회 청각장애인들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매월 1회 작업하여 만든 만다라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에 참여한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평소에 느낀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을 그림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소리 없는 세계의 만다라를 그려낸다. 회원들은 만다라를 완성한 후 각자가 그린 만다라를 통해 색다른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만다라 전이 열리게 된 계기는 매주 일요일 원심회 청각장애인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등 장애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일원스님의 교육비 후원에서 비롯됐다.



1988년 11월 창립한 조계사 장애인 전법팀 원심회는 장애인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로 현재 청각장애인과 불자수어통역사들이 함께 활동하며 수어법회, 수어교육 등 다양한 포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원 스님은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1995년부터 원심회 청각장애인포교를 시작했다. 현재 청각장애인 법당 마련을 위한 불사를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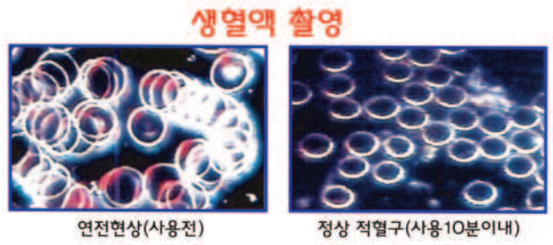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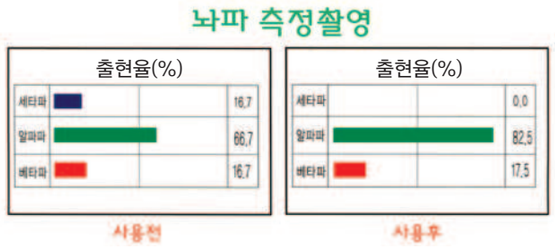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체계적인 명상지도로 불교 대중화 앞장

행복선 명상상담센터, 명상상담가 2급 수료식

수강생 14명 자격증 수여
100시간 수행 · 교육 이수
사성제, 대념처경 명상법
생활 활용한 기술 습득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행복선 명상상담가들이 탄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날짜가 연기되고 다 모이지도 못한 채 조촐히 진행됐지만 이들이 보여준 불교변화는 확실했다. 명상은 삶의 무거운 고(苦)를 어떻게 풀어 해결하는 걸까? 그 해답을 제시한 120일의 행복선 명상 프로그램 2급 과정이 마무리 됐다.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 행복선(禪)명상상담센터(센터장 하림)는 9월 11일 미타선원 설법전에서 행복선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자격증 수여식에는 센터장 하림 스님을 비롯해 홍순하 교육팀장, 정혜정 총괄팀장과 수료생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자격증 수여자는 총 18명의 수강생 가운데 14명이다. 교육과정은 총 12강으로 5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집중수련은 2차로 나눠 실시됐다. 자격증을 수여 받은 학생들은 100시간 이상의 명상수련 경력을 보유했다. 특히 이론과 실습 36시간, 집중수련 20시간, 집중수행 30시간, 일일수행 14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쳤다.

수여식은 자격증 전달식에 이어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에 동참한 수료생들은 삶 속에 문제를 직면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며 명상의 참된 힘을 체험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란 불자는 "성격이 급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일도 해버리는 편이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 곳이 불편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난 뒤 느긋해진 자신을 보았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영도문화복지재단 행복선(禪)명상상담센터는 9월 11일 미타선원 설법전에서 행복선 명상지도사 2급 자격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설춘희 불자는 "명상 과정을 통해 마음이 많이 달라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졌다"며 "만나는 도반들에게 명상의 이익을 설명하고 추천하고 있다"고 했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는 불교의 명상을 철저하게 적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 심리극 혹은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하지만 큰 틀에서는 부처님의 사성제와 대념처경의 명상법이 제시된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는 초기불교 대념처경을 통해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불교에서 강조하는 반야심경을 절묘하게 적용했다.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성제를 명상이라 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오온이 사라지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공(空)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센터장 하림 스님은 "현대인들이 힘들면 정신병원이나 상담을 받으러 간다. 사실 이것은 스님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며 "스님들이 마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기존 불교명상의 단점 중 하나는 지나치게 불교색이 짙어 일반인에게 제시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다. 행복선 명상상담센터 프로그램은 부처님의 명상법을 현대화 해 제시한 시도라 의미가 크다.

수강생 가운데 이영애 씨는 "개인적으로 불자는 아니다"며 "하지만 미타선원에서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은 접하기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종교색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명상을 제시했고 그 명상법이 현재 배우고 있는 비폭력대화 상담기법과도 비슷한 점이 많아 받아들이기가 편했다"는 것이다.

센터장 하림 스님은 명상도 '현대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금 현대인에게 어떻게 잘 전달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숙제처럼 여겨왔다"며 "불교에서 자주 듣는 사성제에 대한 내용이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을 현대에 맞게 잘 적용해 푸는데 10년이 넘는 고민과 연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선 명상상담센터는 1기 자격과정을 9월 18일부터 시작했다. 행복선 명상센터서 1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하자 이틀 만에 접수 인원이 모두 마감됐다.

행복선 명상센터는 "명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현상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꾸준히 명상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소사 설선당 · 요사, 보물 승격 학술대회 '눈길'

지역 청소년 위한 장학금도 기탁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가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보물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안군청이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종합센터가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9월 11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존과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한수영 수석연구원(호남문화재연구원)이 '내소사의 종교적, 역사적 의의', 이향미 교수(광주여대. 문화재위원)가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건축적 특성', 이상희 교수(목원대.문화재 전문위원)가 '부안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9월 11일 부안군청서 열린 세미나에서 참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남해경 교수(전북대. 문화재 위원)를 좌장으로 국립익산박물관 최홍선 학예연구실장, 전북대 김윤상 교수(문화재 전문위원), 전주비전대 박용신 교수(문화재 전문위원)가 토론에 참여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축사에서 "내소사는 1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사찰이다. 설선당과 요사는 1640년에 청민 대사가 지은 것으로 회(回)자형의 특이한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의 보물승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내소사는 학술대회에 앞서 부안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불자들은 부안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설립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진성 스님은 9월 11일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 신도회장 성불화 보살, 신도회 총무 정법행 보살, 관음회 총무 능인행 불자들과 함께 부안군청을 방문해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해 달라며 나누미 근농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부안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성립돼 현재 170억여원 기금을 바탕으로 연간 약 11억원의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범어사 〈삼국유사〉, 국보 지정서 수여받아

9월 17일 보제루서 전달식…'국보 306-4호'로

금정총림 범어사가 소장 〈삼국유사〉 권4~5에 대한 국보 지정서를 수여받았다.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는 2003년 4월 국보로 지정된 서울 규장각 〈삼국유사〉보다 118년 빠른 희귀자료로 사찰 소장 〈삼국유사〉로는 유일하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17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삼국유사〉 국보지정서 전달식<사진>'을 열고 문화재청과 부산시로부터 지정서를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초하루 법회 가운데 개최됐으며 주지 경선 스님의 법문 후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축사 및 지정서 전달, 주지 경선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경선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정서 전달 행사를 축소해 아쉬움이 있다. 추후 이를 널리 알리는 기념행사를 진행해 〈삼국유사〉 국보지정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뛰어난 문학사의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이다. 이번 국보 지정은 부산시의 자랑"이라고 축하했다.

범어사 〈삼국유사〉 권4~5의 국보 지정은 부산사찰 소장 문화재 중 처음이다.

이번 범어사 〈삼국유사〉의 국보 지정에는 주지 경선 스님의 노력이 있었다.


경선 스님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개관 준비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개관하며 〈삼국유사〉가 보물로 지정됐고, 이후 영인본 제작과 전적실 리모델링 등이 이뤄졌다. 범어사는 군위군,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협력해 〈삼국유사〉 목판사업도 진행했다. 당시에 나온 연구결과는 조선중기본 오탈자 및 오류를 보완하는 원천자료로 활용됐으며, 이번 국보 지정의 원동력이 됐다.

범어사는 향후 〈삼국유사〉의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현재 신축 불사 중인 성보박물관 완공 시 〈삼국유사〉특별전과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선 스님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뿐만 아니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 교육, 홍보행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 기반이 될 성보박물관 불사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쿠무다 힐링빌리지 신축불사 후원

9월 15일 미소원 법당서 후원금 5000만원 전달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 일번지 미소원이 통 큰 보시금을 전달하며 불사에 동참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은 9월 15일 미소원 법당에서 쿠무다 복합문화공간 명상센터 불사 기금 전달식<사진>을 개최했다.

후원금은 총 5000만원이며, 미소원에서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마련됐다.

후원금 마련을 위해 1인 100만원 씩 총



50명의 미소원 회원들이 동참했다. 장유정 이사장이 다라니 3000독 기도 후 불사후원을 발원한 것을 시작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참 회원들은 '시대에 맞는 포교 방향에 동참 할 수 있어 기쁘다'는 환희심으로 동참했으며 전달식에서 '가치 있는 일에 최우선으로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미소원에 따르면 회원 중에는 불사 후원금 동참을 위해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팔찌를 손수 팔거나 월급을 받은 후 생활비를 아끼고 불사 지원금 부터 먼저 입금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열정이 컸다.

장유정 이사장은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해 10일 만에 33명으로 늘어나더니 금방 50명으로 늘어났다"며 "주석 스님의 원력이 너무나 커 불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현대적으로 시대에 맞는 포교에 마음이 동해 너도나도 동참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소원은 불사 후원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유정 이사장은 "후원금 전달식 후에도 꾸준히 동참자가 늘고 있다. 스님의 원력을 응원하는 불사 마중물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복합문화예술법인 쿠무다는 새로운 불교 문화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문화 도량 불사를 진행 중이다. 복합문화공간 명상문화센터 쿠무다는 해운대구 송정동에 위치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동다송' 특강 연다

매주 화요일 총 6회… 9월 29일~11월 3일

금정총림 범어사가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 스님의 〈동다송〉 특강을 개최하고 고요한 찻 자리에 숨겨진 의미를 밝힌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동다송〉 특강을 마련한다. 〈동다송〉은 조선 후기 초의 선사가 작성 한 것이다. 정조의 부마인 홍현주의 부탁으로 작성됐으며 송(頌) 형식으로 적은 송시 17수이다. '송시'는 시(詩)에 공덕을 담아 찬탄하는 형식이다. 〈동다송〉에는 차의 의미와 미덕, 그리고 선열(禪悅)까지 담고 있다.

강의를 담당할 원학 스님은 〈동다송〉과 일찍이 인연이 깊다. 27여년 전 처음 〈동다송〉과 접하고 초의문화제를 창립 해 다도정신을 널리 알려왔다. 이후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를 출판해 〈동다송〉에 담긴 의미를 해석했다. 원학 스님은 초의 선사가 직접 쓴 '일지암 필사본'을 모본으로 원문 번역에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해석으로 접근해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원학 스님은 서울 조계사,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문화 예술계 활동으로 불교미술제 우수상 및 국전 동아미술제서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해인사 박물관 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강 신청은 불자 및 다도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하며 수강료는 5만원(교재비 별도)이다. 051)866-727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가야문화진흥원, 코로나 극복 강좌 개최

예술인 후원 및 교육 힐링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 ·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역사 · 문화 체험 교육 힐링 프로그램'을 10월과 11월 김해 일대에서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예술인 및 강사를 후원하고 커져가는 불안감을 안정시키는데 앞장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문화 예술을 통해 김해 지역에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가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민요 △민속춤 △시 및 마음공부 △밸리댄스 △관악기 등이다. 신청기간은 9월 14일~29일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가야문화진흥원은 효와 가야를 주제로 개최한 '제4회 청소년 창작미술 경연 및 글짓기(운문 · 산문) 대회' 입상자를 발표했다. 입상은 창작미술 부문 최우수 김도현(율하고 1) 외 3명이며 글짓기 부문은 이윤서(고양예술고 2) 학생 외 3명이 수상했다.

이사장 송산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있다"며 "상황을 받아들이고 변화의 흐름에 따라 열심히 노력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도구를 잘 활용해 가야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55)327-195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각사, 일연 스님 추모 다례재

군위 인각사(주지 정화)는 8월 29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1주기 추모다례재 및 2020년 일연 삼국유사 학술제를 경내 국사전에서 거행했다. 일연학연구원이 주관하고 인각사가 주최한 추모다례재와 학술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과 종단의 방역수칙 강화로 인각사 주지 정화 스님과 군위 지장선원 선원장 혜봉 스님 , 심춘자 인각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인각사 주지 정화 스님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서로서의 〈삼국유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



다시금 되새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례재에 이어 '2020일연 삼국유사 학술제'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상에는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를, 일연학연구원 이사장상에는 양혜원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군위군수상에는 박다원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강사가 수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현불 논단

풍족함의 역설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여행이 우릴 떠났다" 광고 문구
업무위해 세계 다녔던 과거 회상

여행 기회 풍족했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로 해외여행 · 출장 全無
여행의 소중함 일깨우는 계기 돼

풍부함이 삶을 풍부하게만 할까
삶의 가치를 일깨우는 건 '무집착'

내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 중에 '어플런트(affluent)'란 말이 있다. 이 용어는 풍부한, 풍족한이란 의미의 형용사로서 부족함이 없고 원하면 언제나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넘쳐나는 상태를 지시한다.

불교의 중도(中道)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초기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과 고행을 하는 삶 사이의 중도를 지칭했지만, 점차 의미가 확장되어 있음과 없음 사이의 중도, 영원과 단멸 사이의 중도 등으로 사용되었다. 아마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극단을 피해 중앙을 견지해야 한다는 관점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중도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이 어플런트(affluent)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하여 넘쳐나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닐까? 이러한 삶은 부족하고 결핍되어 항상 모자라는 삶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삶이 아닐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나서 원하면 무엇이든 언제나 할 수 있는 삶을 지양해야 하는 것일까?

코로나19는 한편으로 우리 삶을 옥죄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삶의 소중한 측면을 일깨우기도 한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로 시작하는 광고가 있다. 이 광고를 보면서 불현듯 지난 10여 년간 나의 삶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해외여행이 떠올랐다. 학교와 학회 업무로, 불교 유적 답사를 이유로 인도 · 태국 · 미국 · 유럽 · 중국 등 전 세계를 여행했다. 매달 거의 1번 이상 해외 출장이 있었던 것 같았고 여행을 갈 기회가 지천에 널려 있어서 때로는 귀찮아했던 것 같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때는 여행이 너무나 어플런트(affluent)해서 각각의 여행이 가지는 소중함과 남다른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 이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마시는 물은 너무나 풍부하고 풍족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일단 부족해지면 우리의 목숨을 좌우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과 같다.

코로나19로 여행이 나를 떠나면서, 내가 했던 여행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불현듯 인지하게 되었고 나의 삶을 얼마 많이 변화시켰고 각각의 여행들이 나의 삶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부여했는가를 새롭게 실감하게 되었다.

〈숫따니빠따〉는 '소 주인은 소 때문에 기뻐하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에 '소 주인은 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들이 많은 사람은 아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답한다. 삶이 풍족하고 풍부하며 '옵플런트(opulent)'해서 가진 것이 많게 되면 이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러한 집착은 결국 괴로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집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소가 많다면, 엄청나게 자식들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굳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넘쳐나는 유토피아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의 집착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뉴노멀(New Noraml)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러한 유토피아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곳에서 우리 삶의 소중함과 남다른 가치를 결코 인지하지 못 한 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이 나를 떠나기 전 수많은 답사에서 찍어온 영상과 사진들 천천히 살펴보며 그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한 기억과 의미를 되새기는 일이 나의 일상이 되고 있다. 다시 여행이 나를 찾아오게 될 때를 기다리며 말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나누면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가 되면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을 나눕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망사항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넉넉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기에 모두의 바램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누라고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시(普施)라고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복전(福田)이 없는 사람은 제아무리 애를 써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논밭이 곡물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라는 밭에 복의 나무를 키우고 가꾸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모터펌프의 이치와 같습니다. 모터에 물이 말라버리면 전기를 통해 주어도 물을 끌어 올릴 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았던 펌프는 아무리 핸들을 틀어도 물을 끌어 올리지 못한 이치와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는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다산 정약용도 재물을 오래 보존하는 길은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다. 스스로 자기 재물을 사용해 버리는 것은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고,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무릇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다산의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말은 불교의 보시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면 나에게 복이 돌아오기에 보시는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베풀다 보면 마음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시에는 많고 적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만큼 베풀다 보면 자신이 결코 가난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다, 가난하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습니다. 부족한 것만을 헤아린다면 부족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고만 생각해 받으려고만 한다든지, 가난하다고 체념해 버리면 가난은 다시 되돌아오게 마련이죠.

결핍은 결핍을 부릅니다. 보시를 통해 우선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 수 없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보시의 정신이 부를 끌어들이는 원동력임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바탕이 됩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정부, 불교계 역할 더 주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응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불교계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산문폐쇄와 법회 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정부 방역지침을 넘어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왔을 뿐 아니라, 최대 불교명절인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한달 연기하는 등 과감한 결단으로 협조해 왔다. 유네스코 등재를 앞둔 무형문화재 연등회를 400년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그야말로 나라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불교계의 뼈아픈 결단에 다름 아니었다. 사찰에 신도들의 발길이 장기간 끊기면서 어려움이 극에 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교계 어느 종단이나 사찰도 감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중단하지 않았다.

돌아보면 불교가 시대적 아픔과 함께 한 것은 이번 사례 뿐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나라가, 또 민중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나섰다. 자비의 손길로 아픈 이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은 물론, 때론 나라를 지키기 위한 무장까지 불사했다. 호국불교는 이 같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 이미지다.

남북 정부 간 갈등이 악화되는 등 경색 국면이 이어질 때마다, 불교가 민족 동질성을 되찾는 다양한 행보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한반도 역사와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불교가 그만큼 깊이 스며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불교는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오랜 세월 한반도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나눔의집 할머니 마음치유도 관심을

동국대 의료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에 나섰다. 9월 15일 동국대 의료원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이 업무협약을 맺고 할머니들의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비 감면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국대 의료원 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소속 직원들까지 병원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불교계가 나눔의 집을 운영한지는 28년, 동국대 의료원도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두 기관이 의료지원 등 할머니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교계는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아픈 기억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오랜기간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들의 건강한 삶에는 관심이 부족했다. 할머니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각종 질환에 따른 의료서비스와 재활치료 등 건강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번 동국대 의료원과 나눔의집 간 협약 이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도 나선다면 최근 벌어진 일련의 나눔의집 사태로 인하여 불교계가 손상받은 이미지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교는 종종 의학에 비유되곤 한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듯 부처님 가르침으로 번뇌에 쌓인 이들을 치유하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할머니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마음도 치유하는 일이다. 불교계가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몸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뭇생명들을 치유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실천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찾은 스님이 '승가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스님들 건강, 우리가 책임집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승가 맞춤 케어 '눈길'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의료가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건강하게 수행하며 대중을 교화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에게 필요한 덕목이자 의무가 됐다. 하지만 일반인들과 달리 스님들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 조계종립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제공하는 '승가 맞춤형 의료서비스' 들은 주목할 만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18년 확장한 건강증진센터에 마련된 '승가 지대방' 이다. '승가 지대방' 은 의제(衣制)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스님들이 건강검진이나 진료 시 대기하는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건강검진 시 필요한 복장으로 환복할 수 있는 탈의실과 해우소가 비구 · 비구니 스님 별도로 마련돼 있다.

또한, 병원 출입이 낯선 스님들을 위한 별도의 접수 창구를 이용해 스님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건강증진센터 내 '승가 지대방' 에 대한 스님들의 호응도는 높다. 건강검진을 하며 '승가 지대방' 을 이용한 송광사 재무국장 보일 스님은 "다른 병원에 가면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게 불편한 점이 많았다. 스님들을 위해 이런 공간(승가지대방)을 만들어 줘서 너무 편안하고 좋다"라며 "동국대일산불교병원을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 병원 입구 안내데스크부터 진료까지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모두 친절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함께 검진을 받은 송광사 승가대학장 연각 스님도 "다른 병원에는 대기하며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내 이런 지대방이 있는 것을 모르는 스님들이 많을 것 같다. 병원에 진단하러 왔을 때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서 운영하는 승가병실에서 비구니 스님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승가 지대방' 설치
스님들 검진 · 진료대기 편의 도와
비구 · 비구니 다빈도 질환 분석해
승가 맞춤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스님 위한 전용 입원 병실 제공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스님들을 위한 '승가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 을 운영 중이다. 이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자주 앓는 질환들을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검진 조사 항목을 구성했다.

스님들의 검진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은 물론 검진 병실(특실, 1인실, 2인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관리를 위한 전담자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상소견 발견 시에는 외래 전문진료과와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

무엇보다 검진 항목이나 가격, 서비스적인 면에서 5대 대형병원의 건강검진센터와 비교했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김명숙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건진운영팀 수간호사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질환을 분석해 검진 항목을 만들고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곳은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유일하다"면서 "가격도 다른 대형병원보다 30~4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승가 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 은 불교계 종단 스님(정사 · 정수)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스님들께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스님들을 위한 '승가 병실(5인실)' 도 42병동에 운영 중이다. 낯선 병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병원장과 간호부장이 직접 스님을 찾아가서 회진하는 '승가 라운딩' 도 매주 1회 진행하고 있다.

현재 척추 수술 후 '승가병실' 에 입원 치료 중인 보천 스님은 "다른 병원에서는 법명이 아닌 속명으로 불러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좋은 의료진을 만나 잘 치료받고 있다. 경제적 부담도 적다"며 "스님들을 이렇게 예우하는 의료기관은 찾기 어렵다. 불교 이념을 가진 병원이 더 늘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향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스님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해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장은 "건강증진센터 내 승가지대방은 스님들의 만족도가 높다. 외래 진료 오는 스님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도 설치할 계획"이라며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별도 지대방에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분리할 계획으로 현재 실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인터뷰 | 이해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장



"사부대중 믿고 찾는 우수 병원 만들겠다"

2005년 9월 문을 연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은 올해로 꼭 개원 15주년을 맞는다. 현재 경기서북권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이해원 동국대 일산병원장에게 개원 15주년에 대한 소회와 승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 들어봤다.

Q.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올해로 개원 15주년을 맞았다.

A. 2005년 병원 개원 당시 개원 멤버였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50대 중반이 됐다. 처음에는 일산신도시 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고, 내원 환자도 늘었다. 이제 2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병원이 됐다.

Q. 건강증진센터 내에 '승가 지대방'을 운영하고 있다.

A. 지난 2018년 건강증진센터를 확장하면서 '승가 지대방' 을 설립했다. 병원에서 검진이나 진료를 하게 되면 최소 3시간 이상은 소요된다. 스님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있으면 편하게 있기 어렵다. 탈의도 불편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탈의실, 해우소 등이 갖춰져 있는 '승가 지대방' 을 설립하게 됐다. 현재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를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Q. '승가 병실'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A. 스님만을 위한 전문 병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치는 못하다. 현재는 5인실 규모의 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비구니 스님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필요하다면 비구 스님 전용 병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1주일에 한 번씩 저와 간호부장이 직접 스님들을 찾아 회진하는 '승가 라운딩' 을 하고 있다. 사실 병원에 입원하면 힘든 것이 낯선 환경이다. '승가 라운딩' 을 통해 병원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해드리려 노력하고 있다.

Q. 스님들만을 위한 의료 · 케어 서비스들을 소개해 달라.

A. 스님들은 대형병원에 처음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스님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이다. 건강증진센터에는 비구, 비구니 스님들의 다빈도 질환을 분석해서 검진 항목을 설계한 '승가케어 건강검진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검진 항목 구성이나 가격 등은 어느 대형병원과 비교해도 앞서고 있다고 본다. 또한 불교최초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 중이며, 예불과 기도를 할 수 있는 법당도 마련돼 있다. 여담이지만 이웃종교 성직자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드리며 예우하고 있다.

Q. 향후 병원 발전을 위한 계획은

고양시 인구는 현재 100만 명으로 의료 수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경영이 어려워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300병상 규모의 제2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스님들을 위한 전문 맞춤형 의료 케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스님과 불자들이 믿고 찾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불교계 사부대중께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코로나19대응

제27회 청암사 승가대학,율학승가대학원

총동문회 취소안내

삼보에 귀의하옵고
코로나와 긴장마로 인하여 동문 스님들 심려가 크시겠지요.

존경하는 선배님! 후배님!
일 년에 한번 뵐 수 있는 동문회를
취소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

동문스님들과 청암사 대중스님들의 안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예정되어 있던 제27회 동문회 취소를 알려드립니다.

좋은날 다시 만나 뵙기를 발원하며
동문스님들의 청안하시기를 두 손 모읍니다.

청암사 총동문회장 유화, 소임자 일동 합장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한마음연구』 제5집 발행

『한마음연구』는 대행선 및 불교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적 성과물을 담아
대행선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전문 불교학술 논문집이다.

- 『한마음 연구』 RISS 검색 서비스 지원
- **발행 주기** - 연2회(2월 28일, 8월 31일)
- **투고 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한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한 주제
- **투고 자격**
  - 박사과정이상의 선학, 불교학과 또는 관련된 인문학, 이학, 공학, 의학 등 분야의 전문가
- **투고 시기**
  - 연중 접수(6월 30일, 12월 31일 마감)
- **문의처**
  - 주소 :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 전화 : 031) 470-3277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 www.daehaeng.org



日, 30년간 불교계 인구 4천만 명 감소

일본 종교 소멸 현상 눈길
불교계 심화에 우려 확산
기독교 인구는 5만명 증가

박영빈 객원기자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로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 이 가운데 특히 불교계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9일,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 '야후재팬 뉴스' 등의 매체들은 일본의 종교소멸 현상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전세계적으로 탈종교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우 이미 90년대 말부터 '사찰이탈' 현상이 일어났다. 한 집안이나 마을 전체가 특정 사찰에 소속 되어온 전통적인 신도관리 체계인 단가제도(檀家制度)에서 기존의 신도들이 이탈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에 1995년 옴 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 으로 인해 탈종교화 혹은 종교에 무관심한 성향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경우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에 소재한 사찰은 약 7만 7천여개소, 그러나 이중 30%이상의 사찰이 신도 감소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존속이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본의 종교학자 시마다 히로미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본은 종교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 이중 특히 불교가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종교인구 집계를 분석한 결과, 30여 년 전 8천 7백만 명 가까이 집계되었던 불교계 인구는 현재 약 4천 7백만 명으로 4천만 명이 감소했다. 이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신도와 불교가 강하게 연결된 일본의 종교특성상 불교와 신토 두 종교에 모두 집계된 인원이 다수일 것으로 본다. 만약 순수하게 불교계의 감소만을 본다면 감소율은 최대 45%까지 계산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한편 기독교계 인구는 5만 명이 증가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시마다 교수는 불교계 인구가 급감하게 된 계기로 "1980년대 경제호황과 함께 옴진리교를 필두로 불교에 기원을 둔 다양한 신흥종교들이 난립했다"며 "이후 전통적인 불교교단에 속한 신자들이 약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마다 교수는 당시 신흥종교와 함께 기성교단에 대한 반대로 재가단체들도 급성장했다고 지적했다. "90년에 일련정종에 속해있던 재가단체 창가학회가 파문되면서 1천 6백만 명 가량의 신도들이 일련정종에서 떠나 간 것으로 집계돼 불교계 인구가 격감한 결정적 원인으로 잡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련정종과 창가학회는 신도를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는 4천만 명이 감소됐지만, 실질적으론 2천 3백만 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나 큰 감소폭이다"라고 현황을 분석했다.


탈종교를 넘어서 종교소멸을 향해가고 있다는 일본, 불교계의 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이밖에도 불교계 인구가 감소된 원인은 다양하게 꼽히고 있다. 타종교로의 개종과 같은 이유보다, 전통적인 단가제도에서의 탈퇴, 신도교육의 약화, 불교적 신심의 결여와 같은 교계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례의식을 사찰에 전담하는 일본 불교의 특성상, 장례에 드는 제반 비용이 부담이 되어 재적사찰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꼽혔다. 한 통계는 시다림을 포함한 장례의식 전체에 평균 230만엔(한화 약 2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혔다,

현재 일본불교계에서는 현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다양한 타개책을 내놓으며 불교의 이미지 쇄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가속화되는 사회 전반의 탈종교 현상에 대한 불교계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나선 미얀마 스님

코로나19 후유증 극복 위해


사야도우 우 오타마사라 스님.
사진출처=swissinfo.c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재창궐로 인해 전 세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얀마의 한 스님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급증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활용 운동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9월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의 저명한 승려이자 명상교사인 사야도우 우 오타마사라(Sayadaw U Ottamasara) 스님은 매일 새벽 탁발(托鉢)을 위해 마을로 나갔을 때 페트병과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이 길거리에 쌓여가는 것을 목격한 후 이 같은 활동을 결심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에서만 매일 약 2500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시 당국에 의한 재활용도 매우 산발적으로 이뤄져서 대부분은 버려지거나 태워진다.

사야도우 스님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거리에 버려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포장음식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포장 용기로 인해 쓰레기가 불어났다는 얘기다.

스님이 길거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기부' 다. 스님은 "주민들로부터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부' 받아 재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기부'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스님은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이 고귀한 활동임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더 깨끗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고 했다.

스님이 2008년 양곤에 설립한 불교계 비영리 인도주의 단체 타바르와 센터(Thabarwa Center) 내부에는 현재 재활용 작업장이 마련돼 있다. 매일 끝없이 공급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곳에서 처리돼 차양이나 타이어, 음식 보관용기 등으로 재활용된다.

스님은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낭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가동한 3개월 동안 약 20만 개 페트병, 즉 약 2톤의 플라스틱이 재활용 됐다. 약 1만 달러를 절약한 것"이라고 흡족해 했다.

로이터는 "스님의 재활용 추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압도적"이라며 "스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은 매일 수천 개의 페트병을 기부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550년만에 부활한 합동 기도회

日 천태종 · 신사, 교토서 봉행
역병 · 재난 종식위한 전통의식

코로나 19의 종식을 발원하며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엔랴쿠지(延暦寺)와 교토의 유서 깊은 신사 기타노 텐만구(北野天満宮)가 합동 기도회를 봉행했다. 550여 년 만에 부활한 합동기도회의 모습을 9월 5일 '마이니치 신문' '교토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9월 4일 교토시에 소재한 키타노 텐만구에서 열린 '키타노 고료에(北野御霊会)' 는 550여 년 전 맥이 끊긴 기도회다. 987년 처음 봉행된 이 기도회는 불교와 신토(神道)가 함께 주관해왔다. 기도회에 모셔지는 키타노 텐만구의 제신(祭神), 텐진(天神)은 학문의 신임과 동시에 역병과 재난을 주관하는 신으로 불교와 신토 양측이 신을 위로하여 재해가 없길 발원하는 것이다.


텐만구 본전을 향해 입장하는 스님들과 신관들. 사진출처=교토신문

텐만구 측은 "200여 년 전 신토와 불교를 분리하는 '신불분리령' 이 있기 전까지 텐만구는 엔랴쿠지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스님들이 제례를 주관해 왔다" 며 불교계와의 깊은 인연을 소개했다. 이번 기도회의 부활도 텐만구 측이 먼저 엔랴쿠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랴쿠지와 텐만구 측은 "오는 2021년 일본 천태종의 개조인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과, 매 25년마다 텐만구에서 열리는 대제례가 7년 후에 열리는 것을 동시에 기념하기 위해서 550여 년만에 기도회를 부활했다"고 전했다. 양 측은 "본 기도회의 최초의 목적이 역병과 재난을 종식시키기 위함인 만큼, 현 상황이야 말로 마음을 모은 기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 19의 조기 종식을 기원한다"며 기도회를 부활시키는 의의를 밝혔다.

오전 10시 텐만구의 본전에서 열린 의례는 신도와 불교의 의례가 번갈아 봉행됐다. 엔랴쿠지 측은 특별히 현 천태종의 종정인 모리카와 코에이 스님이 법주로 나섰다. 〈법화경〉의 내용을 문답하고 강설하는 의식인 '산문팔강(山門八講)' 을 중심으로 범패와 염불이 이어졌다.

텐만구를 대표하는 타치바나 시게토쿠 궁사(宮司)는 "부처님과 신을 함께 모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뜻깊다. 오랜 세월 끊어졌던 전통이 부활해 마치 꿈만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엔랴쿠지와 키타노 텐만구는 뜻깊에 부활한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기후변화, 조속한 조치 필요"

G7 정상회의서 특별 당부


달라이라마가 G7 연사로 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가적 행동을 강조한 내용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세계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세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조속하고 단합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 도어(Buddhist door) 등이 9월 14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기후 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G7 컨퍼런스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영국의 입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나는 항상 사람들에게 '세계의 지붕' 인 티베트가 중국 양쯔강과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인도의 브라마푸트라강으로 흐르는 물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아시아 전체에서 강의 근원은 티베트로부터 온다"며 "그런데 티베트에 내리는 눈의 양이 매년 적어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호텔을 이용하는 부자들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는 "70억 명의 인구 전체를 하나의 인간 공동체로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나의 민족' 이나 '나의 종교집단' 이 아닌 70억 인류를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성운대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참된 의미

무엇이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인가?
불교의 핵심 개념과 교리에 담긴 참뜻, 즉 부처님이 본래 가르치고자 했던 진실된 의미를 일상적인 예화와 알기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불교 입문서!
성운대사 지음/조은자 옮김/384쪽/값 16,000원

방거사의 어록과 시 전편 한국 최초로 완역!
방거사 어록 · 시역주

선의 진미를 맛보다!
이제껏 『속장경』의 방거사어록 3권 중 상권의 어록만 소개되었는데, 중·하 권의 시게詩偈와 찬문의 완역으로 드디어 방거사의 진면목을 만나다!
강승욱 역주/양장/528쪽/값 27,000원

한 권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불교 신행의 입문서이자 불교 이해의 길라잡이!
절집에서 늘 대하고 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각종 건축물, 그림, 의례, 불보살, 교리, 경전, 문화, 수행 등, 불교의 핵심 코드들을 알기 쉽게 설명!
도후 지음/29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집현전 학자들, 사찰서 책을 읽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⑱ 사가독서 제도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북한산 중흥사 '책 읽는 템플스테이가' 올해도 계속되는 모양이다. 처음에는 '불서'를 위주로 읽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나태주, 정호승, 문태준 등 시인도 초청했다. 주제도, 그리고 소재도 다양해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조용한 산사에서 책을 읽고 또 필자들을 만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절에서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불교가 사상의 주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유학을 신봉하는 이들조차 공부 장소로 절을 피하지는 않았다.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에서 성리학을 도입해 우리나라 유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안향도 이제는 폐사된 숙수사에서 한때 글을 읽었다. 조선 성리학의 두 기둥 이황과 이이는 각각 안동의 용수사와 금강산의 사찰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다.

이런 '전통' 때문인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책보를 싸서 절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했다. 변호사 출신인 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고시 준비를 절에서 했다.



진관사 대웅전의 모습. 조선 세종 때부터 시행된 '사가독서' 제도의 시행처였다.

세종代 시작된 사가독서 제도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절로 오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조선 세종 때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사찰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사가독서(賜暇讀書)'다. 사가(賜暇)라는 말이 휴가라는 뜻이니 독서 휴가쯤 되겠다.

처음부터 사찰을 택했던 건 아니다. 사가독서 제도가 처음 시작된 건 세종 때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8년 12월 11일 기사에는 집현전 부교리 권채(權採), 신석조(辛石祖), 남수문(南秀文) 등 세 명을 불러 세종이 이렇게 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내가 너희들에게 집현관(集賢官)을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읽혀서 실제 효과가 있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각각 직무로 인하여 아침저녁으로 독서에 전심할 겨를이 없으니, 지금부터는 본전(本殿)에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전심으로 글을 읽어 성과(成果)를 나타내어 내 뜻에 맞게 하고, 글 읽는 규범에 대해서는 변계량(卞季良)의 지도를 받도록 하라."

실록에도 나오듯이 출발은 집에 틀어박혀 책을 보는 '재가독서(在家讀書)'였다. 하지만 곧 '폐단'이 나타났다. 궁궐이 아니라 집에 있으니 틈만 나면 지인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할 수 없이 아예 절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다. 뚜렷한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같은 세종대에 재가독서는 산사독서(山寺讀書) 혹은 상사독서(上寺讀書)로 변하게 된다.

산사에서 책을 읽는다니 유유자적한 모습이 떠오를 법도 하다. 하지만 그렇지만도 않았다. 사가독서 기간은 대개 6개월이었다. 하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규정이나 통제가 없을 수 없었다. 선발된 관리들은 자신이 읽은 책의 권수를 매 계절 첫 달에 적어서 제출하고, 매달 세 차례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 논문을 제출하며, 사가독서를 모두 마칠 때는 결과물인 월과(月課)를 제출해야 했다. 물론 성적도 매기도 시상도 했다.

조선代 절서 공부하는 문화 생겨
세종 시행된 사가독서 제도 기원
지목된 신하들 휴가 받아 독서해
진관사 · 장의사 독서처로 활용돼

진관사 · 장의사 사가독서 장소

사가독서 제도가 상시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현재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세종 8년(1426), 세종 24년(1442), 문종 1년(1451)이다.(1442년 대신 1438년이라고 기록한 문헌도 있다) 첫 시행이었던 세종 8년에는 앞에 밝혔듯이 권채, 신석조, 남수문 등 세 명이 선발되었다. 또 여러 문헌을 종합해 보면 2차인 세종 24년 선발된 인원은 박팽년, 신숙주, 이개, 성삼문, 하위지, 이석정 등이었다. 또 3차인 문종 1년에 선발된 인원은 홍응, 서거정, 이명헌 등이다.

이중 1차는 재가독서였으며 2차는 현재 은평구 진관사에서 진행되었고, 3차는 현재 세검정 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던 장의사(藏義寺)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세종과 문종 때 진행됐던 사가독서는 1차를 제외하고는 궁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의 산사를 택하게 했으며 인원은 집현전 학자가 중심이었고 또 선발 전에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미 계획이 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종 이후 사가독서 전통은 한동안 단절된 전통이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후 집현전을 혁파했기 때문이다. 사가독서가 다시 부활한 건 성종 때다. 집현전과 비슷한 기관인 홍문관이 생겼고 홍문관에 있던 학자들에게 사가독서제도를 다시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사찰에서 공부하던 전통에는 제동이 걸린다. 성종 5년에 사가독서 부활에 대한 논의가 왕과 신숙주 사이에 있었다. 이때만 해도 왕과 신숙주 모두 세종조 이후의 전통에 따라 장소는 당연히 사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성종 초기에 실시되었던 사가독서는 역시 궁궐에서 가까웠던 장의사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과도한 견제와 우려가 있었다. 유자(儒子)들이 절에 가면 '오염'이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서거정이 아예 독서당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청을 했고 선종은 1492년 남호독서당(南湖讀書堂)을 개설하게 한다.

하지만 장소가 또 얄궂다. 지금의 용산쯤으로 추정되는 곳이었는데 원래 이곳이 사찰터였던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용산강 북쪽 언덕에 있는 폐지된 절이 있다. 성종께서 절을 고쳐 독서당을 만들고 홍문관원이 글 읽는 곳으로 삼았다. 일찍이 궁중 술을 하사하여 수정배에 부어 마시게 하고 내처 그 잔을 관원에게 맡겨 두었다. 도금한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맑으면 흐리지 않고 비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물건을 덕으로 알고 주는 생각을 저버리지 말라'는 글귀를 새겼다."

다른 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보면 남호독서당은 원래 절터였던 곳인데 '수리하면 상쾌하고 명랑하고 그윽하고도 넓어서 공부하고 사는 데 적합하다'며 두 달 만에 20칸으로 확장해 독서당 현판을 달았다. 남호독서당에서는 1495년(연산군 1년)부터 1498년(연산군 4년)까지 매년 5~6명이 독서를 했는데 1504년(연산군 10년) 연산군이 훈구파를 제거하는 사건인 갑자사화 이후 폐쇄된다.

원래 호당(湖堂)이라 불리던 이곳은 이후 동호당이 생기면서 용호당 혹은 남호당으로 호칭했다.

정업원, 독서당으로 활용

잘 알다시피 정업원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다. 고려 시대 개경에도 정업원이 있었다. 물론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였다. 그러다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후로는 한양으로 옮겨오게 된다. 정업원 자리가 어디였는지는 논의가 분분하다. 현재는 대체로 동대문 밖 동망봉이라고 하는 설이 우세하지만 창경궁 서쪽이었다는 설도 있었다. 그런데 갑자사화로 폐지되었던 사가독서가 부활하면서 사가독서의 장소로 정업원(淨業院)이 선택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1년 12월 3일자 기록에 보면 "문학(文學)의 선비를 뽑아서 정업원(淨業院)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게 하니, 홍문관 교리 이행(李荇), 김세필(金世弼), 부교리 김안국, 성균관 직강 홍언충(洪彦忠),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신상(申鏛), 이조 좌랑 유운(柳雲), 성균관 전적 김안로(金安老), 예문관 검열 김영(金瑛), 이희증(李希曾)이 여기에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시행 후 멀지 않아 사가독서 장소가 또 옮겨진다. 기록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역시 유자들의 반대가 있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5년 1월 기사에 따르면 "사가독서(賜暇讀書)하는 인원이 정업원(淨業院)에 우거(寓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산(龍山) 독서당 옛 자리는 기울고 무너져서 고쳐 지을 수 없습니다. 두모포(豆毛浦)의 월송암(月松庵) 근처에 넓고 평평하여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있는데, 나무와 돌을 수운(輸運)하기도 편리하고 가까우니, 날을 정하여 집을 지어, 독서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라고 홍문관에게 아뢰자 왕은 그리하라고 전교한다.

여기서 두포모 월송암 근처가 바로 우리가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다. 이때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 동호독서당이 불에 탈 때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관리들의 사가독서 장소가 된다. 물론 임진왜란 후에도 간간히 사가독서제도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 시행도 됐지만 이전만은 못하였다.

현재 진관사는 옛 모습 그대로는 아니지만 조계사나 봉은사만큼 널리 찾는 절이 되었다. 연산군에 의해 폐사된 장의사는 '서울 부근에 물 맑고 풍치가 빼어난 곳'이었지만 연산군이 연회장을 꾸미기 위해 꽃밭으로 만들어놓았고 현재는 초등학교가 들어섰다. 용산의 서호당터는 현재 어디인지 추정이 불가능하다. 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동호독서당 자리에만 작은 기념비 하나가 서 있을 뿐이다. 가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타고 동호대교 옆을 지날 때면 조선 시대 동호독서당의 모습이 그림으로 남겨진 '독서당계회도'가 떠오르곤 한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대형사찰 시설비의 1/10 정도

의 시설비이지만 대형사찰 법당 현장서 본 견본과 염불소리 비교시 놀라운 수준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소리공학 전문인이 오랜 염불정서 연구끝에 앰프다루기1초에 염불! 1초에 설법! 겸용 염불전문시스템으로 제작하였기에 놀라운 소리의 차이가 있음!

스님 세계에 깊게 베인 속단의 습관을 버리시고

오직! 소리 구경 조건으로만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그 부근을 지날 때에만 방문하여 초간단 견본으로 귀법당 시설과 소리비교시 앰프다루기 1초, 특히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장엄한 염불소리 반드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종교상담사 자격 교육

귀장술비법

찾아온 (시간 · 일진)으로 왜 왔는지?
현재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내방자의 사주만 가지고 궁금증을 확실하게 예언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육임보다 쉽고 더 확실한 점술학...
(명리학을 잘 몰라도 됩니다)

제1기 종교상담학과 개설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강의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선착순 30명 접수 ☆ 강사 : 도호스님

3개월완성으로 상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배우고, 완벽한 과학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강특전 해동불교대학원 종교상담과 수료증 수여 (총장 명의)

해동불교대학원 서울 종로구 종로17번길45

문의안내 02)741-0495~6

부처님 말씀으로 부터 불교 시작



이현정의
불교와 스피치
③ 말과 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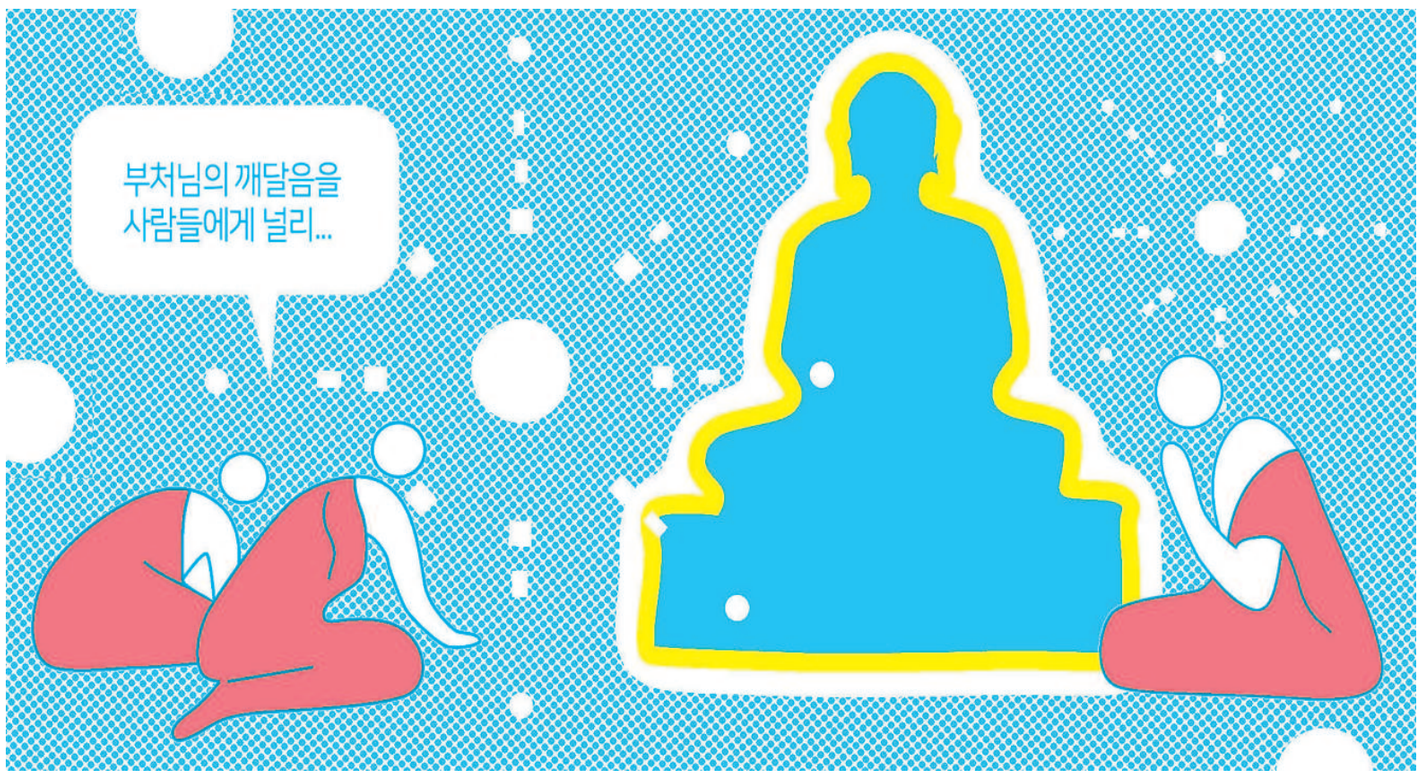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1. 선혜동자와 구리천녀의 약속스피치

부처님 행보의 첫 출발이자,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는 관점은 각각 다를 수 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부터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선혜동자(善慧童子, 수메다 Sumedha)의 발원과 서원이 없었다면 석가모니로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연등불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한 동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연등불이 오시는 곳으로 갔다. 그때 동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연화(靑蓮花) 7송이를 가진 구리천녀(拘利天女, 수밋따 Sumitta)라는 여인을 길가에서 만났다. 선혜동자는 자신의 전 재산인 은전 500냥을 다 줄테니 그녀에게 그 꽃을 달라고 부탁한다. 그런 많은 돈을 줘가면서 굳이 꽃을 사겠다는 것이 의아했던 여인이 이유를 묻자, 동자는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 성불할 것이며 성불할 수기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자 천녀는 돈은 됐고, 그냥 주겠다면서 지금은 수행자이니 결혼은 안 되겠지만, 꽃을 주는 대가로 다음 생에 자기를 부인으로 맞이해달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구리천녀의 말을 따라, 7송이 중 5송이는 선혜동자의 원을 위해, 2송이는 자기의 사랑을 위해 바쳤다. 꽃을 건네받은 동자는 연등불(Dipamkara)에게 꽃공양을 하게 되고 연등불은 동자에게 다음 생에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를 내려주었다.〈본생경〉

2. 나찰의 게송스피치와 설산동자 설득스피치

'변화하는 모든 것은 덧없나니 그것은 곧 나고 죽는 이치일세(제행무상 시생멸법 諸行無常 是生滅法)'

히말라야 산 속에서 수행하던 한 소년(설산동자, 雪山童子)은 이 소리를 우연히 듣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아무리 둘러보아도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섬뜩할 것도 같고, 소름끼치게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소년 즉 동자는 어쨌든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그때 나무 위에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나찰귀신이 흉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나찰귀신이 읊은 것임을 평등한 마음으로 터득한 그 동자는 어디서 그렇게 훌륭한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나찰은 험상궂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너무 배가 고파 헛소리를 했던 것 같다며 딱 잘라 말했다. 뒤에 더 완성된 구절이 있지만 배가 고파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다고 했다.

동자는 사정사정하며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드리겠으니 뒷 구절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목 놓아 외쳤다. 나찰이 그걸 어떻게 믿냐 하자, 동자는 나머지 구절을 들려준다면 나무에서 떨어져 자신의 몸을 나찰에게 보시하겠음을 맹세하겠다고 투철한 의지를 보였다.

"누구나 질그릇을 주고 칠보 그릇과 바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이 몸을 주고 금강 같은 몸과 바꾸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은 대범천왕과 제석천왕과 사천왕 모두가 증명할 것이며 천안통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대승행을 닦아 여섯 가지 바라밀을 구족한 보사들도 증명할 것이며,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도 나를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동자의 간절함이 진실하다는 것을 안 나찰은 뒷 귀절을 마저 읊어주었다.

'나고 죽음이 없어지면 고요하고 고요하여 즐거움을 누리리라(생멸멸이 적멸위락 生滅滅已 寂滅爲樂)'

이 게송을 들은 동자는 나무와 돌, 땅에 이 게송을 쓰고, 약속대로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시방제불이시여, 일언반구를 위해 제 몸을 버리니 저를 증명해주소서' 라고 하며 나찰의 입을 향해 뛰어내렸다. 바로 그 순간 허공에서는 온갖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찰귀신은 제석천왕의 모습으로 돌아와 설산동자의 몸을 허공에서 사뿐히 받아 평지에 내려놓았다. 제석천왕을 비롯한 여러 천인들은 설산동자의 발아래 예배하며 찬탄하였다. 반쪽짜리 게송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로 성불의 시기를 12겁이나 앞당겨 미륵보살보다 먼저 부처가 되었다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이야기다. 〈대반열반경〉

3. 부처님의 탄생스피치

마야부인의 태몽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내면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고, 거룩한 탄생게를 읊었다. 이는 비범함의 상징이며 세상의 최상(最上)이며, 최존(最尊)이고, 최고(最古)를 보여주었다.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모든 세상의 고통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누구나 생명이란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것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천명한다. 부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의 극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전등록〉, 〈수행본기경〉, 〈서응경〉, 〈대장엄경〉

> 전생, 탄생, 전법은 메시지
> 메시지는 전법행의 추진력
> 우리가 전법행에 나설 이유

4. 부처님 성도 후 범천의 권유스피치

그리고 부처님의 출가, 성도로부터 진정한 불교의 출발을 규정지을 수도 있다.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불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그렇다고 성도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성도의 중요성도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가, 성도 이후 혼자만의 해탈과 열반으로 이어졌다면 불교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인도의 수많은 구도자들이 저마다 고행과 수행을 해나갔을 때 부처님의 성도는 남다르고 빛이 났다.

'세존은 7일이 경과한 후 그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보리수 아래로 나아가서 한 번 결가부좌하신 채로 7일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며 앉아 계셨다.' 〈남전대장경〉

그러한 깨달음이 곧 불교의 내용이 되었고, 전법, 법륜의 전부가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가 불교이자, 거룩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혼자만의 향유로 그쳤다면 지금껏 불교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무수한 전생의 선행과 신행으로 인해 부처가 되리라는 암시는 일찌감치 있어왔다. 따라서 석가모니로 태어나 예시대로 부처를 이루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과연 세상에 설할 것인가, 설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 점이 향후 인류의 빛이 되어 양식이 되는 전환점의 순간인 것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 7일이 지난 뒤, 아자빨라 니그로다(Ajapala Nigrodha) 나무로 자리를 옮겨 선정에 들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도달한 이 법은 깊고도 어려우며 깨닫기도 어렵고, 고요하고 숭고하다. 이는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집착하기만 즐긴다. 그런 사람들이 이 도리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략) 내가 비록 법을 설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만 피곤할 뿐이다.' 〈남전 율장 대품〉

따라서 세존은 법을 설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때 대반전이 일어나는 일대사건이 시작되는데, 사함빠띠(Sahampati)라는 범천(梵天)은 세존의 마음을 헤아리고 합장하며 간곡히 청하기를,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선서(善逝)께서는 법을 설하소서. 삶에 먼지가 적은 유정(有情)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듣는다면 알 수 있을 것이나, 법을 설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조차 쇠퇴할 것입니다.'

5. 초전법륜의 스피치

이렇게 범천은 연거푸 청했다. 몇 번을 거절했던 부처님도 그의 간곡한 청에 지극함을 느끼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키며 부처님의 눈(불안, 佛眼)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다. 살펴보니 사람들에는 여러 다양한 부류가 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어 범천에게 말씀하셨다. '내 귀 있는 자들에게 불사의 문을 열겠으니, 죽은 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제사는 그만두어라. 나는 단지 피로할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사람들에게 덕스럽고 숭고한 법을 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니 범천은 공손히 절하고 사라졌다. 이 지점이 부처님은 교법을 설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다. 그때에 세존은 다섯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생략) 비구들이여, 여래가 이 두 변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바르게 깨달았느니라. 〈남전대장경〉

그 유명한 초전법륜, 중도의 설법이다.

6. 전도선언의 스피치

부처님이 설법만 한 것으로 그친다면 진정한 불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심의 발로는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설법이 5비구로부터 시작하여 60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전법을 명했다. 이것이 부처님이 바라나시로 간 이유였으며, 여기서 아라한도 탄생했고, 사부대중도 만들어졌다. 이때 최초의 활동이 바로 전법이다. 마치 범천이 부처님에게 간곡히 몇 번을 청했듯이, 부처님은 강력하게 그들에게 자비행의 전법을 명했다. 모두가 전법행으로 박차를 가하고 전법륜을 굴리게 된 것이다.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의 전도선언에 의한 전법륜행이다.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아!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아! 길을 떠나거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에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할 것이지만,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비구들아!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루벨라의 세나니 마을로 가야겠다." 〈쌍윳따니까야〉

7. 불교의 힘은 부처님의 메시지

부처님의 전생, 탄생, 성도, 전법까지 부처님은 그때마다 메시지를 주셨다. 그 메시지(스피치)의 힘이 불교이며, 전법행은 강한 추진력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같이 전법행에 나서야 하는 이유이며, 메시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불교스피치 전문가〉



“본질과 현상 ‘상즉관계’로 만물 형성”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⑱ 진여[理]

화엄사상에서 진여[理]는 나누거나 분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완정(完整)된 진여본체가 바로 만법(事, 만물)이 체현(구체적 사물의 모양)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만법을 또한 진여가 통섭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사상이 잘 표현된 선종의 게송으로 “청정법신이 널리 무변하고(法身清淨廣無邊). 천강의 물에는 천강의 달이 있다(千江有水千江月)”고 하는 것은 바로 화엄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법계 사상과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법장(法藏)은 우리들의 현상세계를 이(理)와 사(事)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는데, “사에 이가 두루하고, 이가 사에 두루하다(即事遍於理, 理遍於事也)”고 여겼다. 즉 제법의 현상이라는 것은 곧 이(본질)와 사(현상)의 상즉상입(相卽相入)의 관계로서 중첩된 세계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서 이즉사(理卽事) 사즉리(事卽理), 본질과 현상의 상즉관계로 천지 만물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서 모든 작용의 근본은 이(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의지해서 천지 만물(제법현상)이 파생되고, 비록 사(事)가 형상을 나타내어 작용은 하지만, 이 사의 모든 것은 허환(虛幻)이며, 자성이 없으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반드시 이를 의지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동시에 체용상즉(體用相即)을 근거한 원칙으로, 이도 또한 반드시 구체적인 사를 의지해야만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거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 이러한 상즉상입의 상태를 잘 설명한 것으로 중중무진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중무진법계를 설명할 때, 현수법장이 측천무후에게 거울의 중앙에 금사자상을 놓고 거울 속에 겹쳐지는 금사자상을 통해서 중중무진법계를 설명했다는 고사는 유명하다.

그는 〈화엄발보리심장(華嚴發菩提心章)〉에서 이(理) · 사(事)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사문(事門)에 이(理)가 두루한 것은 능변(能遍)의 이(理)를 이른다. 성(性)은 나눌 수 없다. 소변(所遍)의 사는 위를 나누는 차별이다. 하나하나의 사(事) 가운데 이는 모두 전체에 두루했다. (하지만) 나누어서 두루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 진리는 나눌 수 없는 연고이다. 이런 연고로 하나하나의 티끌 가운데 모두 무변의 진리를 섭했고, 원만히 만족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고, 또 부연하기를 “이문(理門)에 사가 두루한 것은 능변(能遍)의 사를 이르며, 이것은 분한(分限, 나누어진다)이 있다. 소변(所遍)의 이는 분한이 없다. 이 분한이 있는 사에, 무한의 이가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같지만 분(分)이 같은 것이 아니다. 무슨 이유인가? 사에는 체(體)가 없고, 도리어 이와 같은 연고이다. 이런 연고로 한 티끌도 무너지지 않고 법계에 두루한 것이다. 저 하나의 티끌, 일체법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고 말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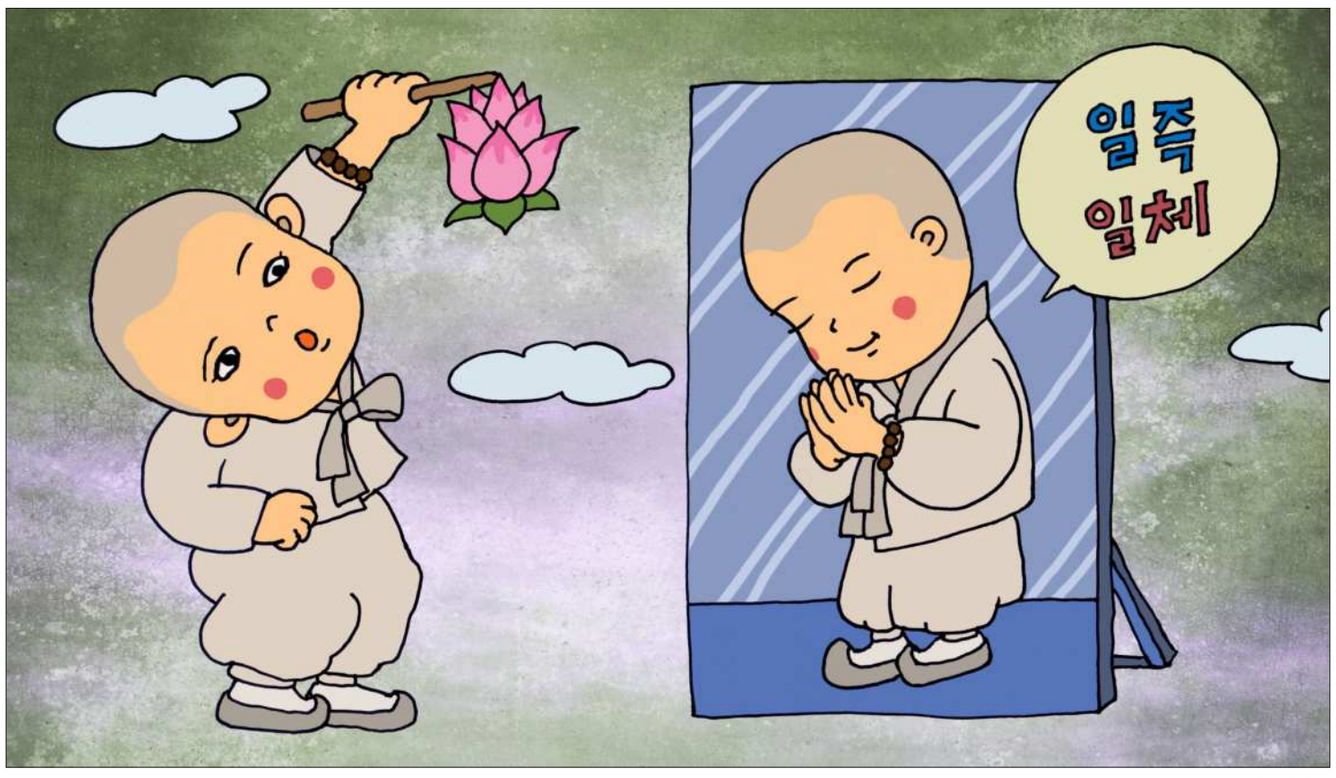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위의 전체적인 내용은 곧 이(理)는 진여본체(真如本體)로서, 분할을 하거나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물이 비록 분한(分限, 각자 독립체)이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전체가 이를 벗어난 것은 아니며, 일체사물 모두가 진여본체를 바탕으로 의지하거나 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사무애(理事無礙)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장애하지도 또한 멀리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모습을 체현하거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月印千江). 이같이 사물의 현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전체와 부분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일즉일체(一即一切), 일체즉일(一切即一),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一)이다. 즉 동일한 본체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사물이 구체적으로 체현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즉 부분(一)과 전체(一切)는 곧 ‘일즉일체(一即一切, 전체와 부분의 융화)’가 되어 현상세계가 나열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천차만별의 사물들은 모두 하나의 본체에 귀결된다는 것으로, ‘일체즉일(一切即一)’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법성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즉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일체진중역여시(一切塵中亦如是),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即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即是無量劫) 등은 모두 같은 의미이다.

임제선, 홍주선 전통 계승
조동종 선법, 화엄과 유사
화엄 ‘理事’→ ‘무정불성’ 설

임제선은 홍주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양하였으며, 심성(心性)의 기점으로 장자가 제시한 “천지와 내가 상호 공생하고, 그래서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天地與我並生, 而萬物與我爲一)”고 한 사상의 원칙을 근거로 평상심시도를 제창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진이다(立處皆真)’의 자오(自悟)를 주장해서 의식 주체의 자각을 강조했다. 임제의현은 “불법에는 용공처가 없으며, 다만 평상시에 일이 없는 것이다. 똥을 누고 오줌을 싸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곧 자는 것이다”고 하면서, “촉하는 것이 모두 불도이다”고 했으며, “오직 처처에 의심하지 않고(處處不疑),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真)하면, 문득 깊지 않은 곳이 없고, 해탈 아닌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있는 그대로가 바로 도의 자리로서, 곧 사람과 도(道)의 사이에 간격이 없고 자연히 서로 합하고(自然相合), 본래 서로 계합한다(本來相契)라는 의미로서, 임제 의현은 게송에서 “마음은 만 가지 경계를 따라서 전하고, 전하는 곳마다 진실로 그윽해서, 류를 따라 성을 인식하면, 기쁨도 슬픔도 없다”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제종은 홍주종의 선법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했는데, 임제가 말한 불법무용공처(佛法無用功處), 지시평상무사(只是平常無事)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마조 도일 선사가 “도불용수, 단막염오”이라고 했던 선구와도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화엄 사상인 법계에 두루한 ‘법신설’ 혹은 ‘진여본체’로 대변되는 이(理)법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깨달으면 된다는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조동종의 ‘회호(回互)’ 설은 모든 방면에서 활용되며 도(道)와 사람도 포함한다. 동산 양개의 게송에 “도는 무심으로 사람을 합하고, 사람은 무심으로 도에 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한 번은 늙고 한 번은 늙지 않는다”고 했다. 위의 구체적인 의미는 동산 양개가 도라는 각도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도에 오입(悟入)하기 때문에 “도는 무심으로 사람을 합한다”고 했는데, 곧 도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서 일체 처에 두루하며, 동시에 사람과 자연에 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무심으로 도에 합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본래무사(本來無事)하고 환과 같이 허망하고, 한편 각자 지은 바 업에 의해서 도와 멀어졌기 때문에 무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와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 가운데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한 번은 늙고 한 번은 늙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인(人)과 도(道)의 관계가 곧 회호(回互)의 관계로서 다만 사람이 도(道)를 모를 뿐이고, 진여본체(真如本體)는 영원하고 만물은 도리어 무상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즉 〈균주동산오본선사어록(筠州洞山悟本禪師語錄)〉에 보면 “후에 어떤 승이 조산 선사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일노(一老)입니까?”라고 묻자, “조산 선사가 이르되, 부축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자 또 “어떤 것이 일불노(一不老)입니까?”라고 하자 “조산 선사가 이르되, 고목이다”고 했다. 즉 인간의 육신 및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혹자는 조동종의 선법은 임제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복잡(葛藤)하다고 평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동종의 선법사상은 도처에서 화엄 사상과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즉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화엄경〉의 법신설 및 진여설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즉 ‘진여가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고, 불신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혹은 ‘불신이 일체 찰토에 충만하다’라는 문구 등등이다.

사료의 기록에 의하면 임제종과 조동종은 수행 상에 있어서 모두 ‘사빈주(四賓主)’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동종의 ‘사빈주’와 임제종의 ‘사빈주’는 같지 않았다. 동산 양개가 말하기를 “사빈주는 임제종과는 같지 않다. 주(主) 가운데 빈(賓)으로서, 체(體) 가운데 용(用)이다. 빈(賓) 가운데 주(主)는 용(用) 가운데 체(體)이다. 빈(賓) 가운데 빈(賓)은 용(用) 가운데 용(用)으로 중복된 것이며, 주(主) 가운데 주(主)는 물(物)과 아(我)를 둘 다 잊은 상태로서, 사람과 법이 함께 없는 것으로, 정(正)위와 편(偏)위를 섭하지 않은 것이다”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임제선은 사제(師徒, 스승과 제자) 관계상에서 빈(賓), 주(主)를 설했고, 조동종은 체(體), 용(用)의 관계에서 빈(賓), 주(主)를 말하며, 이 체(體), 용(用)은 조동종의 종지인 편정회호(偏正回互)를 초석으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도 여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용의 관계는 곧 화엄에서 말하는 이(理, 체), 사(事, 용)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선종 중에서도 조동종의 선법사상인 편정회호(偏正回互)의 이사관(理事觀)은 송명이학의 본체론 철학에 대한 이론체계 수립에 선구자 역할 및 많은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조동종의 오위설은 역사적으로도 의의(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엄 사상인 이사(理事)의 관점이 천태종에 준 영향으로 무정불성(無情佛性)설이 그중에 하나이다. 화엄종의 이러한 관점은 후래의 천태종 형계 담연(荊溪 湛然)이 받아들이면서 이 사상을 바탕으로 그는 ‘무정유성(無情有性)’ 설을 수립해서 발전시켰다. 형계 담연은 “불성은 영원한 심성의 본질이며, 세계 일체의 모든 사물은 다 불성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일진일심(一塵一心)은 곧 일체제불의 심성을 낸다”는 것이다. 또 그는 “만법은 진여이고 불변하는 연고이다. 진여는 만법이다, 연을 따르는 연고이다. 그대가 무정에 불성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찌 만법에 진여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로 만법의 명칭이 어찌 섬진(纖塵, 아주 미세한 티끌)에 막힐 것이며, 진여의 체가 어찌 오직 피차간만이 겠는가(너와 나에게만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 뜻은 곧 진여불성은 곧 세계의 본원이 되며 일체에 두루해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무정(無情)도 반드시 유정(有情)과 같이 불성이 존재한다는 논지이다. 담연은 현상(現象)의 존재는 다만 마음의 본질인 진여본체의 변현(變現)인 것이며, 현상은 비록 다양하지만 최후에는 결국 마음의 본질인 진여불성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강사〉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 · 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 · 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

부처님 법 실현하는 '전륜성왕' 지향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⑱ 미얀마 왕조 정치전통과 민주주의



미얀마 시내에 게재된 8888민주화 운동 기념사진. 미얀마 민주주의는 종교적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는 미얀마인에게 불교는 삶의 철학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알라웅시뚜 왕.



쉐구지 파고다 불상.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치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불교의 꽃을 피웠던 바간 왕조 시기 이후로 미얀마 왕들에겐 이상적인 왕의 상(相)이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는 것이다. 전륜성왕에게 통치의 기본적인 기준은 부처님의 법(法, Dhamma)에 있다. 전륜성왕의 의무는 부처님의 법을 현실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복지를 제공하고,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도덕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학습 등을 행하는 것이다.

미얀마 왕들이 전륜성왕이 되고 싶어 했던 역사적 증거는 바간을 비롯한 미얀마 전역의 파고다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바간 왕조의 알라웅시뚜(Alaungsithu) 왕은 현생에서는 전륜선왕이 되기를 발원했고, 내세에는 미륵불이 되기를 원했다. 알라웅시뚜 왕도 다른 왕들과 같이 파고다를 많이 건립했다. 그 중 쉐구지(Shwegugyi) 사원이 유명한데, 사원의 비석에는 알라웅시뚜 왕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pha yar tal hlu dan ya chin akyo kyaunt kaung chin mingala tway ya par lo ei. kyee myat tae net bya mar a nay nae mway phwar lar poh lae ma lo chin par bu. htat pi bayin a nay nae mway phwar lae poh lae ma lo chin par bu. bayar phyint poh thar su pan pr ei. (파고다를 세우는 공덕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브라마나 위대한 신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왕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미얀마의 왕은 〈자타카(Jataka)〉에 나오는 시왕법(十王法)을 토대로 정치를 해야 했다. 미얀마 왕조의 정치전통은 전륜성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왕조의 정치는 절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왕이 지켜야 할 열 가지 의무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었다. 왕이 지켜야 했던 열 가지 의무는 보시(布施)·지계(持戒)·영사(永捨)·정직·유화(柔和)·고행(苦行)·호의(好意)·비폭력(非暴力)·인욕(忍辱)·불상위(不相違)이다. 미얀마 지도자의 중요한 통치의 근원이었던 시왕법은 미얀마 현대 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있어 군부정권의 방해를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얀마의 민주화는 무고한 미얀마 국민들의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군부정권은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지 않은 80년대에 국가 문을 걸어 잠근 후, 미얀마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을 계층에 상관없이 무자비하게 사살했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낮추기 위해 학교를 폐쇄하였고 해외에 학살소식이 전해질까 두려워 외국인에 대한 배척을 심하게 했다. 군부정권은 민주주의에 대하여 '미얀마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불교와 위배되며 서구의 개념이라 미얀마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프레임을 통해 끊임없이 거부했다. 이 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현실적인 리더였던 아웅산 수찌는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군부정권의 논리에 대하여 반박했다.

아웅산 수찌는 〈자타카〉의 시왕법을 통해 민주주의가 미얀마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군부정권의 논리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부처님이 가르친 쇠퇴와 몰락의 네 가지 원인을 통해 미얀마의 퇴보에 적용하여 논리를 전개했다. 첫째는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일에의 실패, 그 둘째는 파괴된 것의 수복에 대한 태만, 셋째는 공평한 경제활동의 필요성 무시, 넷째는 공덕심과 교양이 없는 사람의 등용이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국민이 지닌 민주적인 권리가 군부의 독재정치로 상실되었을 때 민주주의로 곧바로 회귀하지 못한 점 △도덕과 정치의 가치가 한없이 저하되어 가는 것을 힘을 모아 극복하려 하지 않은 점 △경제는 군부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해 운영된 점 △나라는 지성과 존엄성이 없는 인간들에 의해 지배된 점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얀마 국민들은 민주화를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쇠퇴 일로를 걸어온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권리 행사가 '서양'의 개념이 아니라 미얀마의 전통적인 가치관인 불교에서도 찾을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아웅산 수찌는 강조했다.

통치의 기본적인 기준은
부처님 법을 현실에 적용
'시왕법'을 기반으로 통치
지혜 · 내면의 힘 길러야

군부정권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핵심인 '인권'에 대해서 또 다시 미얀마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인권'의 개념을 비난했다. 아웅산 수찌는 전통적으로 미얀마 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주체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통해 반박했다. 우리는 개개인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올바른 의사와 열의를 통해 진실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까지도 교화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존은 계급사회를 허물고 개개인의 안에 모두 같은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였다. 또 연기적 세계관과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중요시했다.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권개념은 불교 사상과 위배되지 않다고 군부정권의 논리를 재반박했다.

미얀마 민주화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리더였던 아웅산 수찌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정신적인 변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중요성을 둘 수 있었던 것은 불교 교리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신의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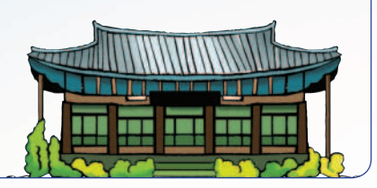
"진정한 혁명이란 정신의 혁명입니다. 그것은 발전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신이나 가치관을 변혁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지성에 의하여 확신함으로써 탄생됩니다. 풍요로움만을 목표로 하고, 단지 시책이나 제도의 변경을 지향하는 혁명에서는 진정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신의 혁명이 없는 곳에서는 낡은 질서의 악을 빚어낸 권력이 살아 남아서, 개혁과 재생의 과정에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진실에 맹세를 하고 희생을 치르며, 욕망 · 적의 · 무지 · 공포 · 로인한 타락에 정하기 위하여 투쟁을 관철하는, 일치된 강한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수단인 동시에 목표이기도 합니다. 민주제도에 입각하여 권력이 행사되는 국가를 이룩하려는 국민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무기력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왕법을 근원으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지혜와 내면의 힘을 겸비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수행이 되지 않은 채 불교의 가치를 정치에 적용하면 올바르게 실현 될 수 없다. 아웅산 수찌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기반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미얀마 왕조의 오래된 이상적인 정치모델인 전륜성왕과 시왕법을 토대로 민주주의 리더의 자질과 민주화 운동을 정당화 하였다. 미얀마 민주주의는 단순히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방이 아니다. 미얀마의 정치적인 전통과 현대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미얀마식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

미얀마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을 그늘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미얀마 속담에는 "나무 그늘은 참으로 시원하다. 부모의 그늘은 보다 더 시원하다. 스승의 그늘은 더 한층 시원하고 왕의 그늘은 더욱 더 시원하다. 그러나 어떤 그늘보다 시원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이 있다. 인공지능을 논하는 현대에도 미얀마 사람들은 정법(正法)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한시하지 않고 삶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미얀마 전통적인 가치관과 문화의 흐름은 불교로 단 한번도 현재까지 맥(脈)이 끊겨 본 적이 없다.

누군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적이라며 비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미얀마를 모르는 것이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종교를 넘어 그들에겐 삶의 철학이자 가치관이며 문화 그 자체이다. 우리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각자 오래된 역사와 문화적인 차이로 하나의 가치가 그 나라에 맞게 수용된 점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

〈양곤대 박사과정〉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울 뿐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㊱ 유심경계

누가 물었다.

"어떤 것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그대가 물으려 하면 벌써 달라져 마음의 성품과 모양이 나누어져 버렸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 모두 자성(自性) 없고 또한 생겨나는 성품도 없느니라. 다만 헛된 이름만 있을 뿐 그 이름도 헛된 것이니라. 그대들이 저 부질없는 이름을 오인하여 진실이라 여기고 있으니 크게 잘못된 것이니라. 설사 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변화를 의지하는 경계일 뿐이다. 깨달음을 의지하고 열반, 해탈을 의지하고 삼신(三身)을 의지하고 경계와 지혜를 의지하고, 보살이나 부처를 의지한다 하는데 그대들이 변화하는 국토 속에서 무엇을 찾겠단 말인가?

더 말하자면 삼승십이분교(三乘十二分敎)의 경전도 모두 더러운 똥을 닦는 휴지이며, 부처도 허깨비 같은 몸이며, 조사도 늙은 비구일 뿐이니라.

그렇지만 그대들 자신은 어머니가 낳아준 몸을 가진 사람 아닌가? 그대들이 만약 부처를 구한다면 곧 부처라는 마군에 걸려들고 만약 조사를 구한다면 곧 조사라는 마군에 걸려들어 버리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무엇을 찾아 구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괴로울 뿐이니라. 아무 일 없느니만 못하느니라."

'땅에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난다(因地而倒者 因地而起)' 는 말처럼 깨닫지 못한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다른 것은 아니다. 마음이 미혹한 상태로 있는 것은 넘어진 것이요, 깨달은 상태로 있는 것은 일어선 것이다. 그러나 넘어져 있는 몸과 일어난 몸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잠자는 눈이나 깨어 있는 눈이 매한가지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과 부처, 중생 셋이 차별이 없다(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하였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은 임제는 묻는 그때 마음은 이미 달라져 버린다고 대답한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은 경지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경지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면 마음도 없다. 그런데 마음과 마음을 물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묻는 것이다. 한 생각 일어나 유심경계에 떨어져 버린 것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유심경계 즉 분별의식에서 놀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선(禪)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화두를 제시하고 실참(實參)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사바세계가 음성교체(音聲敎體)라 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말을 필요로 할 때는 깊은 사유의 세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허상만 좇아다니는 것이다. 말 없는 이언(離言)의 세계가 실상인 진여(眞如)이므로 말을 의지하는 의언진여(依言眞如)는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임제는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헛된 이름뿐이라고 말한다. 자성이 없고 실체가 없는 이름에 속아 끝없는 분별을 내고 있는 것이 모두 중생의 망업(妄業)일 뿐이라는 것이다.

달마의 〈사행론(四行論)〉에 무소구행(無所求行)이 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는 뜻을 가진 매우 역설적인 말이다. 미혹한 사람은 구하는 것이 있고 깨달은 사람은 구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 구하는 것이 있으면 욕구가 일어나 어떤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결국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있으면 괴로울 뿐이다(有求皆苦)"고 하였다.

부처의 몸을 허깨비 같은 것이라 하면서 어머니가 낳아준 몸(娘生己=娘生身) 밖에 찾을 몸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신심탈락(身心脫落)' 이라는 말이 있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갔다는 말인데 모든 번뇌와 집착이 떨어져 나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이다. 송나라 때 천동 여정(天童 如淨)이 납자들이 좌선 중에 조는 것을 보고 "참선은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無明의 실다운 성품이 곧 佛性



세상 속 경전읽기

㊱ 제법공상(諸法空相)

〈반야심경〉의 '제법공상(諸法空相)' 이란 '우주만물[諸法]의 참모습[實相]이 공한 모습[空相]' 이라는 것으로 색즉시공[色卽是空, 나아가 오온개공(五蘊皆空)]과 같은 말이다. 이 공상(空相)은 생멸(生滅) 및 더러움과 깨끗함[垢淨]도 없고, 흠축(欠縮) 없이 원만해 늘고 줌[增減]도 없다. 이 공상은 다만 비어있는 것[但空]이 아니라 '연기를 통해 묘하게 있음[妙有]' 이기도 한 '참공[眞空]' 이니, 곧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색즉시공' 과 '공즉시색' 을 수학(數學)의 입장에서 보면, '색=공' 과 '공=색' 의 수식으로 치환되니 같은 수식이 되지만, 불교에서 이는 참이 아니다. '색즉시공' 의 '색' 은 '가상가명(假相假名)의 색' 이고, '공즉시색' 의 '색' 은 진공묘유(眞空妙有)인 '묘유(妙有)의 색' 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산은 산, 산은 산이 아님, 산은 다시 산' 에서 '산은 산' 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연기로 본 실상)을 모르는 범부가 철석같이 믿은 산으로 가상가명일 뿐이고, '산은 다시 산' 의 산은 묘유(妙有)인 것이다.

이 '묘유의 공상' 인 제법실상[諸法實相; 우주만물의 참모습]에 대해, 〈묘법연화경〉 제2 방편품(方便品)에서는 '열 가지 특징[十如是]' 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처님이 성취한 바는 제일로 희유하고 난해한 법이어서, 오직 부처님들만이 제법실상(諸法實相: 우주에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전부 다 알 수 있느니라. 이른 바 우주만물[諸法]은 (열 가지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지니고 있으니) 있는 그대로[如是]의, 외적 형상[相], 내면의 본성[性], 사물의 본체[體], 힘[力], 작용[作], 직접원인[因], 간접원인[緣], 직접결과[果], 간접결과[報], 처음과 끝이 끝내 평등함[本末究竟等]의 열 가지 범주가 그것이니라." 〈妙法蓮華經 T0262_.09.0005c10~c13〉

이 '십여시(十如是)' 는 천태종의 모든 가르침의 바탕으로, 천태종의 중요한 세계관이기도 하다. 천태 지의 선사는 세계를 범부의 6계(界)와 성인의 4계[四聖六凡] 도합 십계(十界)로 나누었다. 곧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하늘의 육도(六途)인 6범(六凡)에, 성문·연각·보살의 삼승(三乘)과 부처의 사성(四聖)을 더한 십계이다.

금타 대화상께서는 '색즉시공' 곧 '제법공상' 에서, '색[제법]' 을 '쇠에 슬은 녹' 에 비유하고, '공[공상]' 을 '쇠' 에 비유하여 견성(見性)을 위한 수행방편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 '공즉시색' 은 곧 '무애심(無碍心)의 무상행(無常行)' 이라 하고, 공[무애심]을 마니보주(摩尼寶珠)에 비유하고, 색[무상행]을 마니보주에서 발하는 무량보광(無量寶光)에 비유하여 (견성 후) 증도(證道)의 수도방편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견성의 과위(果位)를 실상삼매(實相三昧)라 하고, 증도의 과위를 보현삼매(普賢三昧)라 하였다.

"어리석음[無明]의 실다운 성품[實性]이 곧 불성(佛性)이요, 허깨비 같은[幻化] 빈 몸[空身]이 곧 법신(法身)이로다." 〈永嘉證道歌 T2014_.48.0395c10〉

위 구절은 〈증도가(證道歌)〉의 일부로, 금타 대화상께서 '무명' 은 녹. '실성' 은 쇠와 같다 하였고, '환화' 는 보광(寶光), '공신' 은 보주(寶珠)와 같다 하였다. 따라서 '무명실성즉불성' 은 '색즉시공' 의 다른 표현이고, '환화공신즉법신' 은 '공즉시색' 의 다른 표현이다.

〈증도가〉를 지은 영가 현각(永嘉 玄覺: 665년~713년) 대사는 당(唐)의 승려로, 호는 일숙각(一宿覺)이고 8세에 출가하여 천태의 지관(止觀)에 정통하고, 〈유마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이루었다. 도반 현책(玄策) 선사의 안내로 혜능(慧能)을 찾아가 문답하여 인가를 받고 하룻밤을 묵은 후 용흥사(龍興寺)로 돌아와 선풍(禪風)을 크게 일으켰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닦음의 길 22

주력, 중요한 수행체계

불교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책도 보지 않은 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송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많이 독송하는 〈천수경(千手經)〉이었다. 그렇게 긴 글을 어떻게 암송하는지 궁금해서 한 분에게 물어보니 2, 3년 정도 매일같이 독송하면 저절로 외워진다는 것이었다. 특히 천수다라니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돌아온 답은 뜻밖에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문은 뜻을 생각하지 않고 외워야 효험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어떤 음절이나 문장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주력(呪力) 수행이라 한다. 주력은 글자 그대로 주문(呪)에 초월적이고 신비한 힘(力)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외우게 되면 자신이 지은 모든 업장을 털어내고 깨달음을 얻거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주력은 진각종(眞覺宗)이나 진언종(眞言宗), 총지종(摠持宗) 등의 밀교 종단에서 중시하는 수행법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한 주문으로 '옴 마니 반메 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등이 있다. 주문은 진언(眞言, mantra)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아주 긴 주문은 다라니(陀羅尼)라고 한다. 다라니는 붓다의 모든 가르침이 담겨있다고 해서 총지(總持)라 부르기도 한다.

주문에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 고대 인도인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과정에서 주문을 활용하였다. 또한 병을 치료하거나 재난을 물리치기 위한 의식으로도 사용하였다. 바라문교의 성전인 〈베다(veda)〉에는 각종 신들을 찬양하는 수많은 주문들이 실려 있는데, 특히 〈아타르바베다(Atharvaveda)〉는 주문만을 별도로 모아놓은 책이다. 사람들은 신을 향해 외치는 주문 안에 어떤 신성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주문을 곧 신의 음성이자 우주의 에너지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처럼 주문에 초월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믿게 되자 그들은 신 보다 오히려 주문 자체를 신성시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옴(aum)' 과 같은 주문은 그 자체로 우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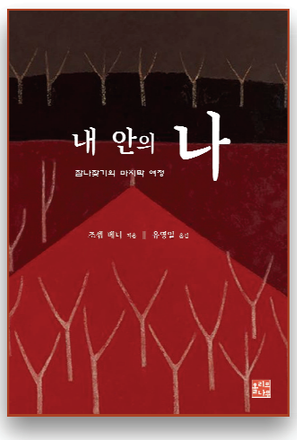
이러한 주력 수행은 대승불교에 이르러 대중들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수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의상대사의 〈백화도량발원문〉에는 "일체중생이 대비주(大悲呪)를 외우고 보살의 이름을 불러서 다 같이 원통삼매(圓通三昧)의 바다에 들기를 발원합니다." 라는 구절이 보인다. 여기에서 대비주란 바로 '나모 라다나 다라야 야' 로 시작되는 천수다라니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신라 당시에도 주력 수행이 어느 정도 대중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력 수행은 종파와 관계없이 중요한 수행법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력을 통해 불교의 본질인 깨침에 이를 수 있을까?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꺼져가는 선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허(鏡虛, 1849~1912) 선사는 제자인 수월(水月, 1855~1928) 선사에게 천수다라니를 수행하도록 지도하였다. 일자무식이었던 수월 선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력 수행에 정진한 결과 마침내 깨침에 이르고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선지식으로 우뚝 세게 된다. 선사들이 주력을 중시한 이유가 다 있었던 셈이다. 주력은 그 자체로 깨침에 이르는 중요한 수행체계였던 것이다.

주문은 불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실행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진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 하지 말고 무조건 외우라고 말한다. 그런데 기독교의 주문에 해당되는 주기도문은 한글이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만약 불교의 진언이 우리말이라면 그 뜻을 모를 수 있겠는가. 인도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요즘은 주문이 거의 우리말로 번역되어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의미를 새기면서 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가 왜 주문을 외우는지, 그것이 나의 실존에 어떤 의미인지를 성찰하고 주력 수행을 하자는 것이다. 문제의식과 간절함, 이는 주력을 포함한 모든 수행의 기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다른 감정이 현재의 감정 만든다

명상書 톺아보기

존 카밧진 등의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1〉 불행감이 우울로 바뀔 때



오늘날 우울증은 수백만명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서구뿐 아니라 경제가 서구화되는 개발도상국도 우울증은 흔한 질환이다. 40년 전에는 평균 40~50대에 우울증이 처음 발병했지만 요즘은 평균 20대 중반에 최초로 발병한다. 그 밖에도 상자에 제시한 우울증에 관한 통계는 오늘날 우울증이 매우 광범위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데이터는 우울증이 재발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을 경험한 뒤 완전히 회복한 사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우울증이 재발한다. 두세 차례 우울 삽화를 겪은 뒤에는 재발 확률이 80~90퍼센트로 높아진다. 그리고 20세 전에 처음 우울증을 앓은 사람은 재발 위험이 더 높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오랜 기간 우울증을 치료하고 연구해 온 우리 저자들은 그것을 알고 싶었다.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우울 삽화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분명 다르다는 사실이다. 우울증은 슬픈 기분과 부정적 사고 사이의 연결을 당사자의 뇌에 형성시켜 우울증을 앓은 사람은 보통의 슬픔에도 더 크게 부정적 사고를 일으킨다. 이런 통찰은 우울증의 작동방식에 관한 이해를 새롭게 했다. 수십년 전 아론 벡 등 선구적 과학자는 우울증에서 부정적 사고가 중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통찰했다.

벡과 그의 동료들은 기분이 상당부분 생각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우울증 이해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그들은 감정을 주도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신념과 해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런데 생각이 기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한 사람의 경우 역으로 기분이 생각에 영향을 미쳐 이미 저하된 기분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쉽게 기분이 저하되는 사람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커다란 상실을 경험해야만 우울에 빠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가볍게 털어내는 일상의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우울에 빠지는 계기로 작용하는 나머지 나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더욱이 이 연결성은 그들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사소한 슬픔으로 부정적 사고가 일어나 우울로 악화된다.

이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우울의 나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본인 조차 어디서 우울의 나락에 떨어졌는지 알지 못한다. 불행히도 자신이 어떻게 지금의 우울에 빠졌는지 이해하려는 용감한 노력 자체가 우울의 나락에 더 깊이 빠져드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자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우선은 우울증 해부학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우울증을 구성하는 네가지 핵심요소인 느낌, 생각, 신체감각, 행동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느낌, 생각, 신체감각, 행동을 통해 삶의 사건들에 반응하는데, 이들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울증의 해부학

우울증의 전체적인 발병 패턴을 간략히 살펴본 뒤 우울증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알아보자.

매우 불행하고 우울할 때면 주요 우울증의 증상표에 나오는 느낌과 생각, 신체감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상실과 이별, 거부를 당했을 때 일어나는 굴욕과 패배감, 좌절의 거대한 감정적 격동은 정상 반응이다. 불편한 감정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나의 삶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자신과 주변에 보낸다. 그런데 이 때 슬픔이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바뀌면 우울이 시작된다. 부정적 생각으로 일어나는 긴장과 통증, 피로와 혼란은 더 많은 부정적 생각을 일으킨다. 헤어나기 힘든 늪처럼 우울이 점점 악화되어 고통을 겪는다. 친구, 가족과의 만남 등 평소 활기를 주던 활동을 중단하면 소진된 느낌이 더 악화된다. 더 노력하는 식으로 대응한다 해도 우리가 느끼는 소진감은 더 커진다.

> **전체감정에 대한 통찰 중요**
> **우울의 나락에서 벗어 나야**
> **상황 해석 따라서 감정 변화**
> **간단한 해석으로 잊어버려야**

느낌, 생각, 신체감각, 행동이 우울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선 우울증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를 살펴보자. 그러면 우울증 전체 그림이 더 분명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우울과 느낌

최근에 기분이 안 좋았던 경우를 떠올려보자. 이때 당신의 느낌을 표현하라고 하면 아마 슬픔, 우울, 무기력, 비참, 낙담, 침울, 자기연민 등의 표현이 떠오를 것이다. 느낌의 강도도 다양해 살짝 슬픈 느낌일 수도, 지극히 슬픈 느낌일 수도 있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우울한 느낌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대개 불안과 두려움, 분노와 짜증, 좌절이나 절망과 함께 일어난다. 특히 짜증은 우울과 함께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기분이 처지면 짜증을 잘내고 쉽게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러 평소보다 화를 더 잘낸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우울에 빠졌을 때 슬픔보다 짜증을 더 두드러지게 경험한다.

우을증으로 진단 내리는 느낌은 대개 결과를 가리킨다. 즉 우울한 결과, 슬프고 기분이 처지는 상태, 비참하고 낙담하는 절망적 상태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울은 시작이기도 하다. 연구에 따르면 수차례 우울을 경험한 사람은 슬픈 기분이 더 많이 일어나며 자존감이 낮아져 자기 비난의 느낌도 더 자주 일어난다.

이때 당사자는 슬픔뿐 아니라 자신이 실패자이며 쓸모없는 존재,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분은 강력한 자기 비난의 생각을 일으킨다. 스스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지금 경험하는 감정을 빌미로 자신을 질책한다.

'이런 바보 같으니라고. 이런 감정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다니.'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린다. 자기 비난의 생각은 매우 강력하며 잠재적으로 독성을 지닌다. 느낌과 마찬가지로 자기 비난의 생각 역시 우울증의 결과인 동시에 시작이기도 하다.

우울과 생각

여기서 다음 상황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린 다음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자.

당신은 평소 자주 다니는 거리를 걷고 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아는 사람이 보인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반응이 없다. 당신을 보았는지 못보았는지 그냥 당신을 지나친다. 이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또 어떤 생각과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이 질문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친구와 가족에게 이 상황을 제시하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이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는 상대가 나를 지나친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상황은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 그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 반응도 다르다.

우리가 일으키는 감정 반응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이야기'는 나에게 입력되는 감각 데이터를 해석하는 24시간 연속되는 마음의 방송이다. 만약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위 상황에 맞닥뜨리면 마음의 연속방송은 그가 안경을 쓰지 않았거나 딴 일을 생각하느라 나를 못보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별다른 감정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 약간 기분이 처진 상태라면 당신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가 일부러 나를 무시했다고 말할 것이다. 또 내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했는지 계속 곱씹을 것이다. 어쩌면 친구를 하나 잃었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은 자꾸 곁가지를 친다. 이런 식의 자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 별로 우울하지 않았어도 점점 기분이 나빠진다. 만약 자기 대화가 내가 무시당했다고 속삭이면 화가 날 것이고, 내가 그를 화나게 만든 게 틀림없다고 말한다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또 내가 친구를 잃었다고 말한다면 외로움과 슬픔을 느낄 것이다.

동일한 사실을 놓고 다른 해석이 일어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리 없는 무성영화와 같다. 우리는 삶이라는 무성영화에 자기만의 해석을 달며 살아간다. 더욱이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만약 위 상황을 별 것 아니라고 해석하면 간단히 잊어버리겠지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앞서 앨리스가 상사와의 미팅 뒤에 느낀 자기 질책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삶의 많은 상황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모호한 성격을 지녔다.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도 달라진다. 자신에 관한 해롭고 왜곡된 생각을 불변의 진실로 받아들이면 슬픈 기분과 자기비난의 생각 사이에 강한 연결이 형성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또 심해지지 않는지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310호 | 15 | 전면광고

사람이 처음엔 악을 저질렀어도 뒤에
선한 행위로 그것을 없애면 구름에서
벗어난 달처럼 세상을 비춘다.



부처님 말씀 읽기 -《출요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먹으로쓴 반야심경8폭병풍 소장하실 불자님 연락주십시요

지리산 백연사 운송도암
010-9208- 3835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 ▶ N
손도사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술술 풀리는 사주강의

스님들, 불자님들 요즈음 많이 어려우시죠? 절운영과 삶에 큰 도움이 될 사주를 **2개월** 만에 막힘없이 술술 풀도록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장소는 경주시이며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강의 할 것입니다
010-7307-1727

• • •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 •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공양주보살
모십니다.
서울중구

• • •

010-8721-2198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이 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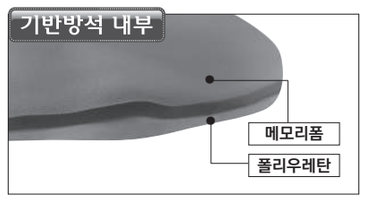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0호 | 16 | 전면광고

늘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교단의 분쟁을 화합시키면, 반드시 해탈문을 여는 것이 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보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20평
◎ 건평 : 50평
◎ 시내중심, 토굴 및 암자
◎ 매가 : 15억

◎ 위치 : 부산시
◎ 주상복합상가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1억

010-5421-1536

지리산 작은암자

- 위치 : 경남 하동 적량면 작은암자
- 인법당, 별채 두동 황토방 하나
- 가액 : 2억 5천

010-6770-8163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
서울·부산 사찰양도 전문 명진도사
◈◈◈

010-4492-347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이포IC 5Km (이천 여주 광주 시내 25분거리)
- 대지299평, 건물 2채 주차시설, 목조 한옥집(24평), 법당 사무실 방 주방 화장실, 요사채(18평), 방2개 화장실2 주방
- 가액 5억5천만원

010-6355-6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 30분거리)
- 대지 : 199평
- 건평 : 22평
- 가액 : 3억 5천
- 잔디밭, 5층석탑, 석등 기타 (경치, 전망 아주좋음)

010-4822-7233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산 4-1 토굴 양도(임대)합니다.
- 방문후 임대, 가격조정가함.
- 법당,산신각,요사채,창고 각 1동.
- 가액 : 3천 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년20만원

010-5714-7872

정말 좋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관리 잘되어있음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방고개길 62-137
- 대지230평/전70평, 건물50평, 중법당20평
- 요사채30평(가전제품,가구 양도가능함)
- 법당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융자4800만원)

010-9177-7842

인법당 안내및 임대

- 위치 :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2층건물
- 1층 접견실 및 요사채, 주방
- 2층 법당 및 스님침소, 옥상태양광설치
- 대지 200평, 건평 60평
- 바다 50m, 조망권 최상
- 가액 : 3억 5천(대출1억 포함)
- 임대가액 : 1500만원/월30만원(시설비없음)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집기일체 모두드림)

054-482-6600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전통시장입구 2층
- 지하철 5호선 길동역 3분거리
- 가액 : 보증금 1억(조정가능), 월세 250, 시설비 상담후 결정.
- 약 130평, (주방, 법당,사무실, 방사6), 모든 시설 구비 (개원 10년차 조계종 정식 포교소 운영중)

010-2727-6899, 02-488-01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오천
- 완벽한 법당시설
- 2층 단독 60평
-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0만원
- 시설비 없음

010-2857-2811

도심사찰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근교 도심 사찰, 부지 540평, 건물 180평
- 1층: 81평 (종무실, 요사채) 2층: 61평 (대웅전, 사무실)
- 산신각, 공양간, 탕비세탁실, 수각, 전통목재 단청건물, 전기 심야보일러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372-896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좋은 법당 안내

- 위치 : 일산 서구 덕이로 큰 도로 정류소 앞
- 평수 약50평, 2층건물 2층 전세 천만원, 월60만원, 관리비 없음
- 삼존불, 삼신각 기타 등등
- 인수 비는 형편대로 상의합시다
- 각 시도군 지사장모집(방송업무)

010-4029-515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구영로 신도시 역세지역
- 평수 : 120평, 4층, 전관(4층건물)
- 방3개, 해우소 3개, 공양간 10평, 주차장 완비, 도시가스 설치가능, 엘레베이터(4층), 법당완비, 즉시 법회가능, 칠성, 산신, 법당연등 고급설치, 에어컨 천장사각 6개, 대형(냉난방됨)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5만원, 관리비 11만원
- 꼭 하실분 연락요망

010-2949-368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입 종 안 내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토굴(급)안내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 버스2분 거리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합해서 건물50평
- 대형마트,은행,병원,시장 전부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 (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4270-3397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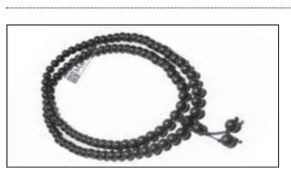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속지 말고 모든 걸, 한군데서 나오는 거 한군데다 제대로 되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3(남) 스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공동 묘지에 묻혀져 있던 그런 많은 영령(英靈)들이 큰스님과는 어떤 인연이었기에 그런 좋은 인연이 되셨는지요.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큰스님 인연이 별다르게 따로 없는 겁니다. 바람결같이 스쳐 가는 인연. 허허허. 우리 모두가 바람결같이 스쳐 가는 인연들입니다. 이게 생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꿈도 아니요 생시도 아닙니다. 생시와 꿈과 둘이 아닙니다. 이것이 모두 바람결같이 돌아가고 찰나찰나에 만남이 있는 것이 그대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이 집을 지으려니까 인연이 된 거죠.

모두 인연이 돼서 하나로 되니까 금방 그 영령들은 백이든지 천이든지 만이든지 모두가 인간으로 환토를 한 거죠. 환토를 해서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이 또 내놔지죠.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여래의 집에 들었다가 여래가 죄 된 거죠. 부처가 다 됐다 이 소리죠. 이 모두가 이렇게 긴요하고 이렇게 모두 무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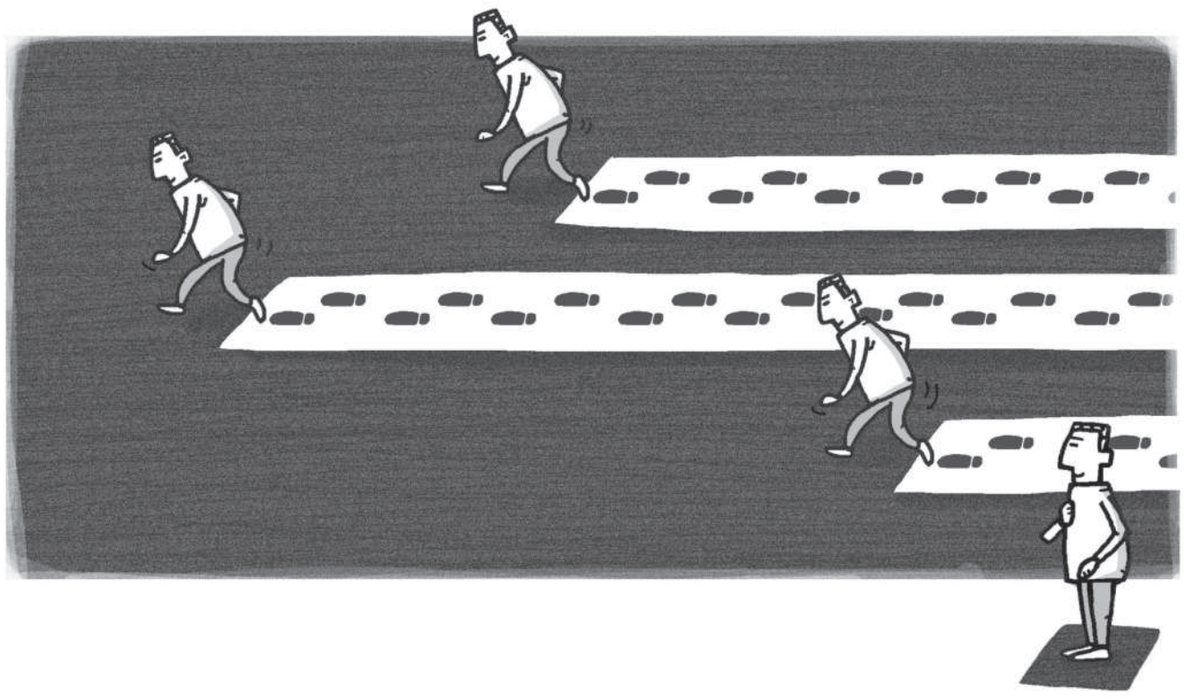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3(남)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쭙고 다시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같은 그런 논장을 보면 아뢰야식(阿賴耶識)이다, 그다음에 뭐, 장식(藏識)이다, 여래장(如來藏)이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위 팔식(八識)이라 그러죠. 그 장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 팔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마음이라고 할 때의 그 마음과 칠식이다 팔식이다 하는 그 식(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여쭙니다.

큰스님 그거를 여러 마디로 할 것 없이 아주 축소해서 말을 하죠. 칠식(七識)이다 하는 것은 우리네 육근(六根)이 공(空)해서 돌아가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것이 칠식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나가서 내 몸을 떠나서 더불어 같이 이 세상 사무 사유를 한데 합쳐서 한마음이 된다면 팔식(八識)입니다. 적게 따진다면 칠식이요, 넓게 전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팔식에 속합니다. 칠식이래도 하나요, 팔식이래도 하나입니다. 팔식 하면 벌써 칠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팔식 하면 팔(八)이라는 건 없어지고 식(識)만 남아서 그건 구경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래장이 되는 거죠. 여래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이 다 송두리째 둘이 아닌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겁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부처 자리 아닌 자체가 없고, 부처님의 작용 아닌 게 없고,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래장입니다.

질문자3(남)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작용을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없어졌다 또 찰나에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작용이 끊임없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한 생각 일어났다가 한 생각 없어지는 그 생멸심이 곧 멸하면, 그것이 고요하고 고요해서 마음이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참 낙(樂)'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요한 그러한 마음의 자리와 끊임없이 일순간도 쉬지 않고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 생멸심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큰스님의 말씀을….

큰스님 만날 말씀을 해 드리는데…, 하하하. 우리가 여기 걸어올 때에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한 발 떼었다 한 발 놓고 이게 생멸입니다. 이게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는 거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알려고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일어났다 또는 가라앉았다, 이게 마음이 이렇다는 것과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한 발 떼어 놓고 한 발 놓고 하는 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안 그런가요? 일어났다 가라앉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성불이라는 말도 없을 거고 중생이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또 한번 방편으로 얘기해 볼까요? 아버지 노릇 하다가 남편 노릇 하다가 또는 형님 노릇 하다가 자식 노릇 하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일어났는데 금방 딴걸로 돌아갔어요. 금방 딴걸로 돌아가고 딴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일어났다 놓았다가 일어났다 놓았다 해도 그냥 여여하게 그냥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둘이 아닌 것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그냥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일어나는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은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악으로나 선으로나,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응용을 하면 선이 되고 잘 응용하지 못하면 악이 됩니다. 싸움을 할래도 "여보!" 할 테고, 좋은 말을 할래도 "여보!" 할 겁니다. 그런 걸 대치를 해서 잘 응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질문자3(남) 예. 그럼 그 한 생각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 마음을 이름 붙여서 생멸심이라고 한다면 그 생멸심과 적멸심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번뇌심과 보리심이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번뇌심이, 본래심이 번뇌심과 다르다고 그 관습에 의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지 않으면 광대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광대하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광대하게 창조를 해낼 수도 있고, 창조력을 기를 수도 있고 계발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저 수행하는 데 발전하게 하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한 재료!

항상 내가 그런 말을 하죠.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는데 팥죽 방울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주걱으로다가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요것도 문수!" 하고 쳤더라. "이건 무슨 까닭인가?"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그렇게 하지 그 까닭을 모른단 말입니다. 내 몸뚱이가 팥죽 솥이라면 팥죽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그걸 번뇌라고 하는데, 번뇌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게 그 속에서, 한 속에서 화해서 나오는 업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알아야죠.

속지 말고 모든 걸 "한군데서 나온 거 한군데에 제대로 되놔라." 하는 소립니다, 그게.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하고 친 게 자기 마음의 주장자로서 자기한테서 나오는 것마다 거기다가 놨습니다. 놓으라고 그런 방편을 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자리에는 일어나는 그 마음. 번뇌도 망상도, 또는 도라는 이름도 없는 겁니다.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걸어오듯이,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걸어오듯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레공법이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합해서 불이 들어와서 가정이 밝게 살고 사회가 밝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바로 한 마음에 밝게 불이 켜졌을 뿐입니다.

질문자3(남) 재료를 재료로서만 알고 재료에 결코 끄달리지 않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만 깨달아도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큰스님께서도 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물질문명이라는 이 편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금은 같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큰스님의 말씀을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 끄달리는 의식들이 너무 힘이 세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려 하고 어떤 닥쳐오는 시련이나 아니면 죽음과 삶의 길에 도달했을 때, 그 큰 재료가 있을 때에만 그런 말씀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문명이 편리하다 보니 여기에 끄달리고 있는 저희들은, 능히 세상을

☞ 18면으로 계속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모든 의식들을 한마음으로 귀결 짓고 둘로 보지 않아야

☞ 17면에서 계속

구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지금 현실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코앞에 있는 것도 같고 때로는 굉장히 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능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알아듣고 또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일러 주십시오.

큰스님 이 마음이란 멀고 가깝고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아주 쉽게 그냥 얘기하죠. 지도자가 전깃줄이라면 전깃줄을 이쪽에서 하나 대 주면 그냥 불이 들어와서, 한순간에 불이 들어오면 그 모두가 밝으니까 밝음의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전지의 그 밝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밝죠? 그러나 따라가는 사람은 '밝으니깐 가야지!'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그 도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죠?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시로 변통을 해서 건지는 수가 있고, 구원하는 수가 있고, 하나는 정말 지도자가 이 도리를 알아서 거기다가 한마음이 같이 돼 준다면, 진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한손으로서, 그 천백억 화신 자체의 손이 한손이 돼 가지고 그대로 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죠. 모르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알고 구원을 주느냐 받느냐 하는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를 다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말을 하죠. 지도자한테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린다면 그 마음이 전체가 한 그릇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준 사람의 마음대로 그냥 행이 나옵니다. 마음이 생기고 행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걸 이끌어 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동시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저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쪽 물방울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없죠? 밝게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게 살 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래심(如來心)이라고 합니다.

밝게 불이 번쩍 일어났을 뿐이지, 이런 용도에는 이런 불이 필요하고 큰 용도에는 크게 불이 들어와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심력으로 말미암아 그 불빛은 가지각색으로 이쪽 전깃줄에다가 이쪽 전깃줄을 붙여 주면 불이 들어와서 큰 데는 크게 붙여 주고, 작은 데는 작게 붙여 주고 이렇게 해서 천차만별로 건지는데, 건져도 건져 준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네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면에 붙어서 불이 들어왔다면 불 들어온 것뿐인데, 이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서로서로가 교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말하고 돌아가면서 서로 인연에 따라 상대성 원리로서 계발도 하고 발전도 하고 이러는 그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다 물리학이다 하는 이름을 넘어서서 심성 의학이라야 되고, 심성 과학이라야 되고, 심성 물리학이라야 그것이 알맞게 작용을 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이것도 없고 저래도 저것도 없다 하는 것은,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없다고 한 뜻은 어떠한 까닭에 없다고 했는가. 그것을, 공부하면서 그 뜻을 잘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전에 나를 친견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 준다고 믿으면 될 거를,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되묻고 되물어서 오히려 전깃줄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만듭니까? 그러면 외려 불발이 되어서 안 될 수가 있거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불발이 돼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수가 십중팔구는 되죠.

그러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하는 걸로 족하게 생각하고 갔으면 되는 거를, '귀가 있으면 듣겠지!' 하고 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야 되는 거지, 조건이 있다면 '너는 이런 업이 있으니까 못 하고, 이런 업보를 지었으니깐 못 하고, 무슨 이러한 병이 있으니깐 너는 못 하고….' 이런 이유가 붙으면 그것이 전깃줄과 전깃줄이 어떻게 붙습니까? 이유가 없이, 불을 켜려면 이유를 불문에 붙이고 전깃줄을 한데 합치는 거죠. 그죠? 이걸 붙일까 말까, 이거 붙일까 말까 하고 붙입니까?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그래서 컴컴하면 딱 붙여서 불을 켜서 밝게 살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은 먹어라 이 소립니다. 변소 가고 싶으면 변소 가고. 하하하.

질문자3(남) 예. 큰스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오점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심쩍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깨닫고 난 뒤에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 그 의미와 깨닫고 난 뒤에는 보임을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큰스님 깨닫고 나서 보임을 잘해야 한다는 것도 맞고, 깨닫고 나면 아무 건덕지도 없다 하는 말도 맞습니다. 허허허. 왜냐하면 내가 자성 부(父)와 자성 자(子)가 한데 합쳐지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데 합쳐졌을 뿐이지, 자기가, 즉 씨를 심어서 싹이 났을 뿐이지 자란 것은 아닙니다. 자라려면 그만큼 수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머리 안 깎은 사람들이나 입산을 할 때는 '이 무명초를 다 끊어 버리겠습니다' 하고선 다짐을 하고 끊어 버렸습니다, 아주 애당초에. 그랬는데 이 형식적으로만 끊어 버렸지 수행해 나가는 데 진실하게 우리가 무명초 하나하나를 끊어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모든 것을 거기다 모아서 놓는 데서 이 무명초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점수(漸修)다 하는 거는, 그런 수행을 하는 나를 발견했으면 보림이라고 해도 좋고 보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 넣고 나한테 그냥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보임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놓고 가야 합니다. 악이든지 선이든지 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되는 거 감사하게 놓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고, 이렇게 해서 둘 아닌 도리를 또 두 번째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가서는 둘 아닌 도리를 탁 알았는데 나투는 도리를 몰라. 아까 전깃줄과 전깃줄을 대어 주고 떼어 주고 대어 주고 떼어 주고 하는 도리를 모른다면, '모두 일체 여래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일체 중생이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투는데, 즉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이렇게 나툴 줄을 모른다. 이럴 때는 그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깨달음이 있어서 만약에 나툼의 도리를 안다면 일체가 나 아님이 없이 모두가 난데, 자기가 자기 꺾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내가 됐다고 하고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땐 점수(漸修)라고 해도 맞고, 그게 끝났을 때는 "아, 너도 나도 다 둘 아니게 돌아가는데 이거는 하나도 없다." 하는 소리도 맞고, 둘이 다 맞으니까 둘이 다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하하.

절대적으로 이 도리를 물렁물렁하게 봐서는 아니 됩니다. 형상을 보고 무시하거나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이거는 형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형상과 정신과 둘 아니게 작용하는 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고도 없고 일체 만물만생이 생명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전력이 똑같듯 생명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면 모두 하나도 버림이 없어야 되고, 버림이 없어야 항복을 받고, 항복을 받아야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도리가 나옵니다.

질문자4(여) 제 동생이 병이 안 낫는데 살려 달라고 왔습니다.

큰스님 병원에 가니까 뭐라고 합디까? 여긴 병원이 아니니까.

질문자4(여) 뭐, 간이 좀 나쁘다 그래요. 간이 나쁘다….

큰스님 이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알아 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두 80%, 90%는 마음에서 병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어디가 좀 아프면 그냥그냥 바깥으로 그냥 쭈르르 갑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소릴 들으면 날더러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의사들한테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땐가 내가 얘기했죠. 이 다리가 썩어서 잘라야 할 텐데 그 마음과 마음이 전깃줄을 붙이니까 고만 이 모든 인체의 마음들이, 골수의 모든 생명 의식들이 그냥 전부 작용을 해 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깐 썩어 들어간 게 금방 내려가서 이 발목으로 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자를 걸 안 자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박사들도 머리를 깨우뚱거리고 종교를 뭘 믿느냐고 묻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이 인체의 모든 의식들이 이 관법을 알아서 모든 의식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스리면서, 그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면서 한마음으로 귀결을 짓고 둘로 보지 않아야만이…. 자기를 자기가 죽이는 법이 없죠. 자기가 자기를,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꺾을 수는 없죠, 이 손가락 하나가. 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인체의 의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한 주장자로 돼 있는데, 손가락처럼 하나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까? 그러니깐 작용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모든 데서 작용을 해 줘서 굳어 들어가는 데를 완치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두가, 무슨 병? 간암? 간암이든지 백혈이든지 어떠한 거든지 이 종류 종류가 따로 따로 있겠지만 모두 이 뼛속에서, 병이 위중하든 간단하든 이 뼛속의 골수에서만이 이 모든 작용을 해 주고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해 주고 바꿔 주고 이러는 데서, 그 의식들이 작용을 해 주는 데서 병이 완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들으면 '아이구! 나 죽네. 이젠 꼼짝없이, 아무리 해도 이것은 안 나으니깐 이거는 꼼짝없이 죽었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의식들도 전부 작용을 하다 말고 '아이구, 꼼짝없이 죽었어!' 그러곤 안 해요.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지.

그러니 이 한마음의 도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도 그렇다 이거야, 전부가. '할 수 없어.' 가 아니라, '할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심력이라는 것은 빛보다도 더 빨리 더 귀중하게, 아까 전깃줄 붙이듯이 그렇게 붙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다 건진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아주 그것이 너무 과거로부터 지은 것이 돼 놔서 참 완고한 사람이라면 어찌해 볼 수가 없죠. 그렇다는 건 뭘 뜻하느냐. 그릇을 만들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착한 마음의 그릇을 만들지 않을 때, 그릇에 담기질 않아. 붙여지질 않아. 전깃줄도 이렇게 이게 선을 까고 붙여야죠? 까지 않고 그냥 붙일 수가 없죠. 까지 않고 붙인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까서 붙이면 아주 불이 들어오게끔 까 가지고 붙여야지 까지도 않고 어떻게 붙여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어서 받아야 된다 이 소립니다.

>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남의 원망을 하지 말고
> 어떤 게 있어도 내 탓으로 돌리고, 나로 밀어넣고
> 나한테 그냥 놓고 또 돌아가야 합니다.
>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다 놓고 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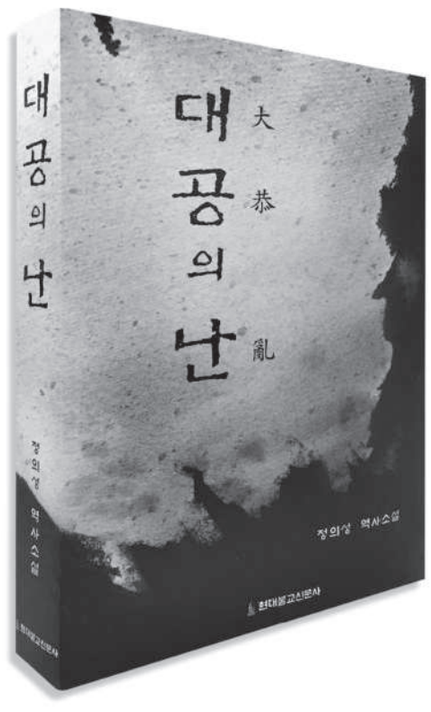
※위 법문은 1992년 9월 20일 정기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02)732-1520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우리 서로 봐줘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봐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 아픈 사람은 많아요. 아집의 병으로 행복을 원하지만 그것이 고통을 만들어요. 너무 안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멸하지 않고 잘못된 에고로부터 벗어나게 도와 줘야 해요.

누군가 자신을 막대기로 때리면 때린 사람을 탓하지 막대기를 탓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잡고 있는 아집과 습관을 탓해야 합니다. 죄는 싫지만 사람은 아껴야 해요. 이것이 바른 견해이며 이렇게 바라봐야 남을 봐줄 수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픈 사람이에요.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직 이해와 사랑만이 얼어붙은 그의 마음을 녹이고 치유할 수 있어요.

장발장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신부의 은식기를 훔쳐 갔어요. 경찰에 잡혀 돌아왔을 때 신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너무 서둘러 가서 은촛대를 잊고 갔다고 했어요. 신부의 용서와 사랑으로 장발장은 선한 본성을 되찾고 선한 길을 가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 장발장이 있다면 자신의 본성을 되찾게 해 줘야 해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다 아파요. 자신도 타인도 봐줘야죠.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⑱ 태국 · 부탄– 체리사원과 푸나카 종

사원 돌다리 聖·俗을 이어주다

팀부 시내 인근 체리사원 참배
사원 돌다리서 '조주석교' 참구
부탄 특유 요새형 사원들 '눈길'

아침에 눈을 뜨니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이다. 고원의 신선한 공기와 청정한 환경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이 실로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이다. 창문 너머로 봄의 대향연이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이 두 뺨을 스친다. 이렇게 살아서 수행하며 순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새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다.

먼저 한국의 무문관과 비슷한 팀푸 시내에서 멀지않은 체리사원을 찾았다. 이 사원은 티베트 까규파의 본산인 랑룽사원의 18대 승원장인 샵드룽 나왕 남걀에 의해 1620년에 세워졌다. 그는 티베트를 떠나 부탄으로 17대 승원장의 유해를 모시고 들어와 이 사원을 건립한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6년간 수도하면서 부탄 전역의 통일에 위업을 달성해 낼 구상을 마쳤다. 그리고 티베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사원과 요새가 결합된 형태인 종(Dzong)이라는 독특한 사원 건축을 고안해 낸다. 그리고 1627년 심토카종을 시작으로 부탄 전역에 요새 형태의 사원들을 건립한다. 이는 사원이 군사적 요새이자 관공서이며 경제적 중심으로 자리잡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체리사원 입구에는 작은 시내를 건너는 너무나 예쁜 돌다리가 있다. 이 돌다리가 사원의 일주문 역할을 하는 듯하다. 수많은 벽돌을 정성스레 쌓아 이토록 멋진 돌다리를 만든 이들의 피땀 어린 노고와 신심에 찬탄하고 싶다.

〈벽암록〉 52칙에 '조주석교(趙州石橋)'라는 화두가 있다. 한 스님이 "어떤 것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라고 묻자, 조주 선사가 "나귀도 건너고 말도 건너지"라고 대답했다. 어디 나귀와 말 뿐이겠는가, 온갖 중생을 모두 건너게 하는 것이리라. 그 다리 가운데에 선채 시냇물을 바라보니, 도리어 '다리가 흘러가고 물은 흐르지 않는(橋流水不流)' 듯 한 생각이 든다.

돌다리를 지나 오색의 타르쵸가 휘날리는 불탑을 둘러보고는 호젓한 산길을 따라 체리사원으로 향한다. 이곳의 부탄 스님들은 마치 평지를 걷는 듯 비호처럼 날렵한데, 우리 일행은 그야말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헐떡인다. 1시간여의 산행 끝에 드디어 체리사원에 도착했다. 산기슭에 그림처럼 자리해 그야말로 선경을 방불케 한다. 이런 곳이라면 금새 도를 이룰 것 같은 천하명당이다.

사원 입구에 견공 석상이 하나 있는데 쇠줄로 묶여있는 것이 이채롭다. 어차피 석상이라 움직이지 못 하는데 굳이 목줄을 매달아 놓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억압의 사슬과 굴레를 벗어나야 비로소 대자유인이 됨을 상징하는가 보다.

사원의 2층 법당에는 은으로 된 스투파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17대 승원장의 유해가 모셔진 곳이다. 스투파를 배경으로 푸른 하늘이 창대하고 가없다. 사원 주위로는 토굴 수행터가 자리하는데 저 곳에서라면 금방 도를 이룰 것만 같다.

이젠 부탄 제2의 도시로 '겨울의 수도' 기능을 한 푸나카로 향한다. 푸나카로 가기 위해서는 해발 3130m의 도출라 패스를 넘어야 한다. 도출라 고개 정상에는 108탑이 순백의 히말라야 설산을 배경으로 우뚝 자리한다. 108탑을 돌며 저 마다의 소원을 비는 부탄인의 모습이 성스럽다. 순례단도 그들 뒤를 따라 탑돌이를 하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어본다.



체리사원 입구의 돌다리. 성과 속 가교역할을 한다.

아쉽게도 구름에 가려 히말라야 연봉의 장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어찌 그리 쉽게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가 있으랴. 그래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림으로만 히말라야 연봉을 그려보며 돌아오는 길에는 친견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어본다.

드디어 '어머니의 강'이라 불리는 포추 강의 두 물주기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그림같은 푸나카 종에 다다랐다. 강에 놓인 현수교를 건너면 작은 요새라고 불리는 푸나카종이 자리한다. 푸나카종은 1328년에 창건됐지만 현재의 범선 모양을 갖춘 것은 1637년 샵드룽에 의해서 였다. 해발 1300m 정도에 위치하여 겨울에도 따뜻해 겨울이오면 부탄 불교의 본부가 팀푸에서 이곳으로 이전한다. 또한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힌다.

푸나카 종은 샵드룽이 건축설계를 단 하루만에 마쳤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온다. 특히 이곳은 부탄 전역의 수많은 종들 중에서도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또한 역대 국왕들의 즉위식은 물론이고 왕실의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열린다. 근자에는 제 5대 국왕부부의 결혼식도 이곳에서 열렸다고 한다. 현재 500여 명의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다.

푸나카종을 참배하고 나와 사원 근처의 현지인들이 사는 곳을 둘러봤다. 부탄인의 맑고 고운 마음과 담백한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작은 가게집에서 과자와 사탕을 사다가 스님들과 나눠 먹는 재미도 있는 여행의 추억이다. 순례단을 이끄는 설정 스님께서 선인장을 만지시다 가시에 찔리시는 바람에 걱정이 많았다. 부탄 동진 스님들을 만나서인지 옛 시절로 돌아가 갑자기 개구쟁이 동자승이 되셨다. 그래도 "괜찮다, 까딱없다"고 하신다.

푸나카 외곽의 산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호텔에 들어 저녁을 먹고 휴식한다. 누군가 정성으로 만들어 보시한 스투파와 오색 타르쵸가 진리의 말씀을 하늘로 전한다. 그러면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이 또한 밤새워 팔만대장경을 설하는 듯 하다.

잠 못드는 나그네도 침묵한 채로 양 볼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그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포시 미소 지어본다. 부처님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중생들과 내 삶에 감사할 따름이다. 나마스테(Namaste)!

〈조계종 교육부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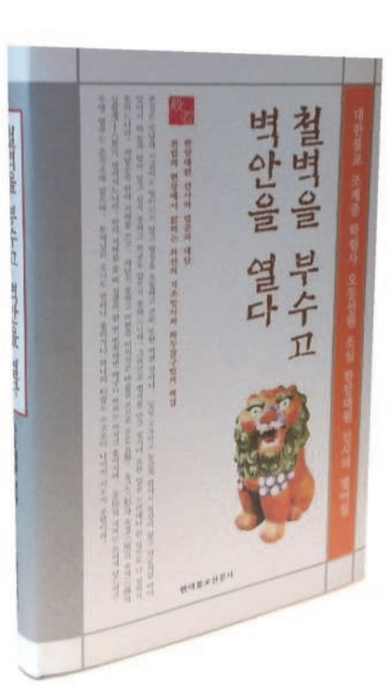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마음의 등불, 그 황금의 맥을 가리켜 보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어집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본심은 옛날과 지금에도 떨어지지 않고 망정을 초월하고 견해 또한 여읜 것이니, 담담 고요하고 둥글게 밝아서 형상이 없고 허공처럼 비어 있어서 하늘과 땅이 덮고 싣지 못하고 허공도 삼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법계를 안고 삼키며 묘한 법을 드러내니 한 입으로 다 설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은즉 반야 지혜를 쓰고, 깨닫지 못하고 미한즉 어리석은 마음을 쓰므로 오온, 육근과 육경과 육식의 십팔계가 벌어지느니라.
반야 지혜를 쓸 때 섬광이 한 번 번쩍하면 마구니 머리는 깨지고 흩어지며, 음의 세계는 쓰러져 엎드리고, 무명 범부는 흔적조차 없으며, 부처님과 조사도 천리나 물러가니 하나의 티끌도 수고로이 나에게 세우지 못함이라. —본문 중에서

* 한암대원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350쪽 | 값 19,000원



한암대원閒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 고봉 · 석릉 · 관응 ·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混海)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 동화사 · 해인사 · 불국사 ·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古庵)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일년 365일 죽비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충남 공주의 학림사 오등선원. 하루도 빠짐없이 화두와 씨름하면서 '길 없는 길'을 찾아가는 공부인들에게 등불을 밝혀 길을 안내하는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황금의 법맥을 따라 올라가면 석가 세존에까지 이르겠지만 푸른 지구의 동쪽 끝, 한반도의 오늘을 밝히고 있는 법맥 중에서도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은 조실 스님으로 인하여 중요한 한 가지[技]를 차지한다. 스님은 "홀연히 잣나무 꼭대기에서 손을 놓고 한걸음 나아가라는 말을 듣고 / 확연히 의심 덩어리 녹아 깨달았네. / 밝은 달은 홀로 드러나고 맑은 바람은 새로운데 / 늠름히 비로자나 이마 위를 활보함이로다."라고 깨달음의 기쁨을 읊으셨다.

현대불교신문사 서울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606호) 주문전화 042)825-1724, 02)2004-8253

학림사 오등선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제석골길 67 전화 042)825-1724